

폴란드 국방조달시장진출 가이드북

2019. 12.

국방기술품질원

제 목 차 례

제1장 폴란드 국방조달시장 개관	1
제1절. 국가개요	1
제2절. 국방조달 최근 동향	13
제2장 국방조달 관련 법규 및 조직	25
제1절. 관련 법규	25
제2절. 국방조달 조직	26
제3절. 입찰 제도 개요	29
제3장 입찰 참여 방안	32
제1절. 입찰 사전 준비사항	32
제2절. 입찰 참가 절차	33
제3절. 입찰 심사	37
제4절. 낙찰자 결정 심사방법	40
제5절. 낙찰 통보	41
제6절. 계약 및 사후관리	42
제4장 한국과의 국방조달 입찰제도 비교	46
제1절. 제도	46
제2절. 조직/운영	46
제3절. 외국기업 개방성	47
제5장 시장진출 사례 분석	48
제1절. 개요	48
제2절. 성공 사례 : 한국산 K-9 자주포 차체 수출	48
제6장 시장진출 전략	50
제1절. 국가 특성 분석	50
제2절. 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 분석	56
제3절. 시장진출전략	57
제7장 수출유망품목	64
제1절. 후보품목군 선정 : 1차 스크리닝	64

제2절. 후보품목군 선정 : 2차 스크리닝	66
제3절. 수출유망품목 선정	66
제4절. 수출유망품목별 시장진출방안	68
제8장 한국 공공기관 및 기업 현황	73
제1절. 한국 공관 및 기관	73
제2절. 한국 기업 현황	73
제9장 자주 묻는 질문 (FAQ)	77

표 차례

<표 1> 폴란드 국가 개요	1
<표 2> 폴란드 정치제도	2
<표 3> 폴란드 경제 지표	2
<표 4> 폴란드 신용등급	3
<표 5> 폴란드 수출입 현황	3
<표 6> 한국의 대폴란드 수출입 현황	4
<표 7> 폴란드 병력규모	5
<표 8> 폴란드 육군 무기체계	5
<표 9> 폴란드 해군 무기체계 현황	7
<표 10> 폴란드 공군 무기체계 현황	8
<표 11> 폴란드 국방비 현황 및 GDP 대비율	9
<표 12> 폴란드 예산항목별 국방비 지출 현황	10
<표 13> 폴란드 주요방산업체 현황	12
<표 14> 폴란드 일반 방산업체 현황	13
<표 15> 폴란드 군 주요 장비 획득계획	14
<표 16> 폴란드의 무기 수입현황	18
<표 17> 폴란드의 무기 수출현황	19
<표 18> 폴란드와 한국 간의 제도적 측면 비교	46
<표 19> 폴란드와 한국 간의 조직/운영 측면 비교	46
<표 20> 폴란드와 한국 간의 외국기업 개방성 측면 비교	47
<표 21> SWOT 분석결과	56
<표 22> 폴란드 수출유망후보품목 현황	66
<표 23> 폴란드 수출유망품목 선정 결과	67
<표 24> 폴란드 수출유망품목별 시장진출방안(무기체계)	68
<표 25> 폴란드 수출유망품목별 시장진출방안(일반장비)	70
<표 26> 폴란드 수출유망품목별 시장진출방안(물자)	72
<표 27> 폴란드 주재 공관 및 공공기관 현황	73
<표 28> 폴란드 주재 주요 한국기업 현황	73

그림 차례

<그림 1> 폴란드 군 주요 장비 획득계획	14
<그림 2> 폴란드 국방부 조직도	27
<그림 3> 폴란드 군비검증단 조직도	28
<그림 4> EU 공공조달전자체계 홈페이지	30
<그림 5> 공공조달청 공공입찰 공고화면	34
<그림 6> 법률신문 공공입찰 공고화면	34
<그림 7> 방산수출 정보지원체계 개념도	60

제1장 폴란드 국방조달시장 개관

제1절 국가개요

1. 개요¹⁾

<표 1> 폴란드 국가 개요

구분	내용	비고
국명	폴란드(Rzeczpospolita Polska; The Republic of Poland)	
독립기념일	1918년 11월 11일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3국 분할 종료)	
수도	바르샤바	
인구	3,856만 명	2018년 기준
위치	유럽 (동경 20° 00', 북위 52° 00')	
면적	312,685km²	
민족구성	폴란드인(93.7%), 독일인, 벨라루스인, 우크라이나인, 유태인 등 기타(6.3%)	
종교	가톨릭(95%), 기타(5%)	
언어	폴란드어(Polish)	
시차	한국시간보다 7시간 느림	
기후	연평균 17~19°C(겨울최저 - 30°C, 여름최고34°C)	
경제지표 ²⁾	- GDP : 5,857.8억불 - GDP 증가율 : 5.1% - 1인당 GDP : 15,423 달러	2018년 기준
화폐	즈워티(Złoty, PLN) - 환율 : 1달러 = 3.87 즈워티(2019 12. 10. 기준)	

1) 대한민국 외교부
2) 세계은행 인터넷 자료

제1장 폴란드 국방조달시장 개관

제1절. 국가개요
제2절. 국방조달 최근 동향

2. 정치

<표 2> 폴란드 정치제도

구분	내용
정부형태	대통령제가 가미된 의원내각제 -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 - 실질적 국정운영은 하원 다수당에서 선출된 총리가 수행
의회제도	양원제 - 상 원 (Senat) : 100석 - 하 원 (Sejm) : 460석
주요 인사	대통령 : 안제이 두다 (Andrzej Duda, 2015. 8월 취임) 총리 :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Mateusz Morawiecki, 2017. 12월 취임) 외무장관: 야첵 차푸토비츠 (Jacek Czaputowicz, 2018. 1월 취임)

3. 경제

가. GDP

- 폴란드의 GDP는 2018년에 5,857억 달러였다.
- 실질경제성장률은 2016년도 3.1%에 2017년은 4.8%로 2018년 5.1%로 성장세를 보였다.

<표 3> 폴란드 경제 지표

단위: 미화 달러

구분/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실질경제성장률	3.1%	4.8%	5.1%
1인당 GDP	12,241	13,651	15,423
GDP 구조	농업3.3%, 광공업 41.1%, 서비스업 55.6%		

나. 신용 등급

- * 2017년 초 신용등급(장기)은 미국의 Stanford & Poor's사는 A-, 무디스사는 A2, Fitch Ratings사는 A-로 평가하였다. 각 사별로 약간 다르지만 종합적으로는 투자적격 등급이며, 장기적으로는 경제환경이나 경영여건에 따라 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표 4> 폴란드 신용등급

신용평가사	등급	평가년도
Stanford & Poor's	A-	2017
무디스	A2	2017
Fitch Ratings	A-	2017

다. 수출입 현황³⁾

<표 5> 폴란드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PLN, 증감율: %

품 목	수 출			수 입		
	2014년	2015년	증감율	2014년	2015년	증감율
식품 및 동물	75,262.20	80,175.80	6.5	51,100.50	53,252.70	4.2
음료 및 담배	10,802.40	12,175.90	12.7	4,539.50	5,460.30	20.3
원자재(연료제외)	16,860.20	16,888.30	0.2	22,674.50	23,146.20	2.1
광물연료, 윤활유	28,479.30	24,328.00	-14.6	73,802.60	53,682.90	-27.3
동식물오일, 지방, 왁스	2,066.10	2,069.50	0.2	2,741.50	2,544.50	-7.2
화학약품 및 관련제품	63,035.70	65,607.60	4.1	101,169.50	102,634.60	1.4
공산품	136,603.30	141,019.10	3.2	123,506.90	127,337.80	3.1
기계류 및 운송기기	262,219.00	288,667.60	10.1	238,192.40	266,078.60	11.7
기타 공산품	96,988.70	115,024.90	18.6	73,948.20	87,033.30	17.7

4. 한국과의 관계⁴⁾

가. 외교 관계

- 1989. 11 : 외교관계 수립
- 1989. 11 : 주 폴란드 대사관 개설

3) KOTRA Global Window (폴란드 국가정보 2016년 9월 30일 기준)

4) 외교부 인터넷 자료 > 주 폴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2016.9.30일 기준)

- 1990. 01 : 주한 대사관 개설

나. 수출입 동향⁵⁾

- 우리나라의 대폴란드 수출은 2011년부터 3년 연속 이어진 마이너스 성장세를 극복하고 2014년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는데 성공하였으나, 2015년에는 27.1% 감소한 미화 28억75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6> 한국의 대폴란드 수출입 현황

단위 : 미화 백만 달러, 증감율 : %

구분/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6월)
수출액 (증감율)	3,678.3 (-10.3)	3,600.7 (-2.1)	3,849.5 (6.9)	2807 (-27.1)	2,912 (3.7)	3,116 (7.0)	4,334 (39.1)	2,420 (-)
수입액 (증감율)	535.0 (42.2)	775.2 (44.9)	772.9 (1.8)	696 (-9.9)	541 (-22.3)	628 (16.1)	673 (7.2)	371 (-)
무역수지	3,143.3	2,825.5	3,076.6	2,111	2,371	2,488	3,661	2,049

다. 방산수출 통제

- 우리나라는 국제평화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한 다자간 국제수출관리체제 공조를 위하여 핵확산금지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화학무기금지협약(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 등의 국제 조약을 체결하고 바세나르체제(WA),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등 수출통제기구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또한 수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방위사업법 제57조에 따라 ‘방산물자 및 유사 무기체계, 구성품’에 대해 방위사업청의 수출허가를 얻어야 한다.
- 이러한 수출통제사항을 종합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방산물자 수출지역을 “가”, “나” 지역으로 분류하여 차별적으로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 “가” 지역 :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미국, 영국 등 29개국)

- “나” 지역 : “가”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및 지역

- 폴란드는 “가” 지역 국가에 포함되어 있어 전략물자 수출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군사력⁶⁾

가. 병력규모

<표 7> 폴란드 병력규모

구분	계	육군	해군	공군	합동군
병력	110,000명	48,000명	7,000명	16,400명	38,600명
조직		3개 기계화사단 12 독립여단	2개 함대 1개 항공여단	4개 비행단 1개 방공여단 1개 통신여단	

나. 군별 무기체계

(1) 육군 무기체계

<표 8> 폴란드 육군 무기체계

분류		장비명	수량	초도 도입시기 ⁷⁾	수명 (년)	도태 예정시기
기동/장갑	Main battle tank	T-72/A	307	N/A	30	
		T-72M1/72M1D	373	N/A	30	
		Leopard 2A4	142	2002	30	2032
		Leopard 2A5	105	2014	30	2045
		PT-91/91M	232	1992	30	2024
	Multi-purpose	HMMWV	217	N/A	30	
	Reconnaissance vehicle	BRM-1	22	1987	30	2020
		BDRM-2/FUG	290	N/A	30	
	Command/Information	Rosomak WDC2	7	N/A	30	
	Armoured infantry fighting vehicle	Rosomak	693	2004	30	2038
	Armoured all-terrain vehicles	Dzik 2	43	2005	30	2040
	Mine-Resistant Ambush Protected (MRAP) vehicle	Oshkosh M1240A1 M-ATV	45	2014	30	2050
	Armoured recovery vehicle	Bergepanzer 2	28	2002	30	2039

5) KOTRA Global Window

6) IHS Jane's 2019

분류		장비명	수량	초도 도입시기 ⁷⁾	수명 (년)	도태 예정시기
화포	Self-propelled howitzer	122mm 2S1(M-1974)	295	1972	40	2012
		155mm Krab	24	2011	40	2041
		122mm WR-40 Langusta	73	N/A	40	
	Multiple rocket launcher	122mm BM-21	72	N/A	40	
		122mm RM-70	30	N/A	40	
대전차 무기	Anti-tank guided missile	SPIKE-MR, SPIKE-LR,SPIKE-ER	N/A	N/A	40	
		9K11/9K114 Malyutka(AT-3'Sagger')	N/A	N/A	40	
		9K111 Fagot(Bassoon)(AT-4'S pigot')	N/A	N/A	40	
		9K111-1 Konkurs(Contest)(AT-5' Spandrel')	N/A	N/A	40	
		9M114 Shturm/Shturm-V(AT-6 'Spiral')	N/A	N/A	40	
	Anti-tank gun	85mm D-44M/MN	N/A	N/A	40	
	Rocket-propelled grenade	RPG-7V	N/A	N/A	40	
		RPG-75-TB	N/A	2010	40	2050
		RPG-76 Komar	N/A	1985	40	2025
	Multi-role recoilless rifle	Carl Gustav	N/A	1990	40	2030
회전의 항공기	Attack	Mi-24D	12	1979	30	2009
		Mi-24W	13	1985	30	2015
	Attack	W-3W	14	1994	30	2024
		W-3WA	17	1997	30	2027
		W-3PL Gluszec	4	2011	30	2041
	Medical	Mi-17AE	2	1980E	30	2010
	Utility	Mi-17	4	1980E	30	2010
		Mi-17-1V	5	2010	30	2040
		Mi-17-1V	7	2008	30	2038
		Mi-8	17	1967	30	1997
		Mi-2	46	1966	30	1996
	Command	W-3PPD Gipsowka	1	2003	30	2033
UAV	ISR	Scan Eagle	10	2010	30	2040
		Aerolight	2	2010	30	2040
		Orbiter	45	2008	30	2038
		FlyEye	60	2010	30	2040

7) 추정치(Estimate)

(2) 해군 무기체계

<표 9> 폴란드 해군 무기체계 현황

분류		장비명	수량	초도 도입시기	수명 (년)	도태 예정시기
함정	Frigate	Oliver Hazard Perry	2	1980	40	2020
	Corvette	Kaszub(Project620)	1	1987	40	2027
		Orkan(Sassnitz)(Project660)	3	1992	40	2032
	Minesweeper - coastal	Goplo(Notec)(Project207P/ 207DM)	1	1982	40	2022
		Gardno(Project207P)	12	1982	40	2022
		Mamry(Notec II)(Project207M)	4	1992	40	2032
	Landing Ship - tank	Lublin(Project 767)	5	1989	40	2029
	Landing Craft - utility	Deba(Project716)	3	1988	40	2028
잠수함	Attack	Kilo	1	1986	40	2026
고정익 항공기	Research	An-28E	2	2001	30	2031
	Transport	M28B Bryza TD	4	2001	30	2014
	Maritime patrol	M128B1R Bryza 1R	7	1994	30	2024
		M128B1R Bis	1	2008	30	2032
회전익 항공기	Search and rescue	Mi-14PL	2	1983	30	2013
		W-3RM Anakonda	5	1992	30	2022
		W-3WARM	3	1998	30	2028
	Utility	Mi-2	4	N/A	30	N/A
	Anti-submarine	Mi-14PL Strike	8	1979	30	2009
		SH-2G	4	2002	30	2032

(3) 공군 무기체계

<표 10> 폴란드 공군 무기체계 현황

임무		장비명	수량	초도 도입시기	수명	도태 예정시기
고정익 항공기	Attack	SU-22M4	26	1985	30	2015
	Multirole	F-16C Advanced Block52	36	2006	30	2036
		F-16D Advanced Block52	12	2006	30	2036
		MIG-29(성능개량)	21	1989	30	2019
	Transport	C-130E	5	2009	30	2039
		M28B Bryza TD	10	2002	30	2032
		M28B/PT	13	2011	30	2041
		C295M	16	2003	30	2033
	Trainer-advanced	TS-11	31	1963	30	1993
		M-346	8	2016	30	2046
	Trainer-basic	PZL-130TC-II	29	1992	30	2022
	Trainer-operational	MIG-29UB (성능개량)	6	1989	30	2019
		SU-22UM3k	6	1985	30	2015
회전익 항공기	Search and rescue	Mi-8RL	4	1967	30	1997
		W-3RL	12	1993	30	2023
	Utility	Mi-2	15	1966	30	1996
	Executive	Mi-8	6	1967	30	1997
	Special operations	Mi-17	8	1973	30	2003
		W-3P	1	1993	30	2023
	Trainer-basic	W-3WA	7	1995	30	2025
		SW-4	24	2006	30	2036
		G2 Cabri	5	2013	30	2043
미사일	Air-to-air	AA-2 'Atoll'	N/A	N/A		
		AA-7 Apex'	N/A	N/A		
		AA-8 'Aphid'	N/A	N/A		
		AA-10 Alamo	N/A	N/A		
		AA-11 Archer	N/A	N/A		
		AIM-9X Sidewinder	N/A	N/A		
		AIM-120C AMRAAM	N/A	N/A		
	Air-to-surface	AS-7 'Kerry'	N/A	N/A		
		AS-9 'Kyle'	N/A	N/A		
		AS-10 'Karem'	N/A	N/A		
		AS-12 Kegler'	N/A	N/A		
		AS-14 Kedge'	N/A	N/A		

임무		장비명	수량	초도 도입시기	수명	도태 예정시기
미사일	Air-to-surface	AGM-154C Joint Stand-Off Weapon	N/A	N/A		
		AGM-65G Maverick	N/A	N/A		
방공 무기	Self-propelled surface-to-air missile	S-125 Neva SC(SA-3'Goa')	17	1980E	40	2020
		2K13-M Kub Kvadrat(SA-6)	25	1973	40	2023
		9K33 Osa-AK(SA-8'Gecko')	60	1980	40	2020
	Man-portable surface-to-air missile	9K32/9k32Strela-2/2M (SA-7a/b'Grail)	N/A	1970	40	2010
	Anti-aircraft gun (twin)	23mm ZUR-23-2KG	N/A	1986	40	2026
	Anti-aircraft gun	57mm S-60	144	1970E	40	2010
	Self-propelled anti-aircraft gun Army Aviation	23mm ZSU-23-4MP Biala	12	2005	30	2035

6. 국방비⁸⁾

가. 총괄

- 2019년 폴란드 국방부의 예산은 116억 9천만 달러 규모로 GDP의 약 1.98% 수준이다.
- 폴란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국방물품을 보충하기 위한 자본 확충에 목표를 두고 있어 매년 국방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1> 폴란드 국방비 현황 및 GDP 대비율

2019년 기준, 미화 백만 달러 기준

구분/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f	2021f	2022f	2023f
국방예산	10,005	10,329	11,193	11,692	12,627	13,118	13,788	14,428
국방비 증가율	/	3.24%	8.36%	4.46%	8.00%	3.89%	5.11%	4.64%
GDP 대비율	1.93%	1.90%	1.96%	1.98%	2.08%	2.11%	2.15%	2.19%

* f : 추정

나. 예산항목별 국방비

- 2019년 기준 기능별 국방비 중 운영유지비(Ops and Maintenance)는 28억 1400만

8) IHS Jane's 14 September 2016

달러, 획득비(Procurement)는 31억 4100만 달러 규모이다.

- 운영유지비의 경우 2017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2019년에 최대치를 달성하였으며,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획득비의 경우도 운영유지비와 비슷하게 2019년에 최대치를 달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표 12> 폴란드 예산항목별 국방비 지출 현황

2019년 불변가, 미화 백만 달러 기준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f	2021f	2022f	2023f
획득비	2,856	2,801	2,951	3,141	3,632	3,624	3,833	4,039
운영유지비	2,364	2,350	2,546	2,814	2,913	3,135	3,307	3,463
연구개발비	251	255	280	293	315	332	351	361
인건비	4,354	4,624	5,011	5,104	5,338	5,648	5,925	6,204
기타	180	300	404	337	429	379	371	360
합계	12,021	12,347	13,210	13,708	14,647	15,139	15,809	16,450

* f : 추정치

7. 방위산업 현황⁹⁾

가. 개요

- 폴란드의 방위산업체는 대략 90여 개이며, 고용 인력은 약 3만여 명이다. 폴란드 방산업체는 국영업체, 민영화한 업체,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그룹의 자회사, 그리고 지역 업체가 혼합된 상태이다. 그러나 주요 방산 업체는 오랜 민영화진행에도 불구하고 국영 형태로 남아있다.
- 국가의 지속적 노력에 의해 폴란드의 방산 업체들은 과거 구소련시절 통제된 경제체제로부터 오늘날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성공적으로 전환되었으며, 능력면에서 동유럽에서 가장 앞서 있고, 폴란드의 방위산업전략은 과거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모델이 되고 있다.
- 폴란드는 우주항공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저비용 생산과 기술 서비스로 지역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 폴란드 정부는 군사장비 개발 및 생산을 위하여 Polish Armaments Group(Polska

Grupa Zbrojeniowa SA(PGZ SA))과 Central Military Bureau of Design and Technology(Wojskowe Centralne Biuro Konstrukcyjno-Technologiczne SA(WCBKT SA))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 PGZ SA는 폴란드 정부 소유 방산업체의 지주회사(holding company)임
- WCBKT SA는 1980년 폴란드 국방부가 정부 소유 방산업체들을 통합하여 항공기 지원장비 및 시뮬레이터, 전차와 장갑차를 위한 훈련장비 등을 설계 및 생산하는 업체임

나. 항공 분야

- 우주항공 분야는 폴란드 방위산업기반 중 가장 발전된 분야이다. 부품의 제작으로부터 완전한 상용항공기의 생산까지 자국내 공급체인을 형성하고 있다.
- 폴란드 우주항공회사들은 폴란드 정부에서 시행한 방산정책의 산물이다. 예를 들어 폴란드 남동쪽에 위치한 우주항공 클러스터는 폴란드의 F-16 구매사업의 결과물이며, 폴란드 우주항공 분야의 90%를 생산하고 있다.

다. 기동/장갑차량 분야

- 폴란드는 지상 및 장갑무기체계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급능력을 갖고 있으며 웨도화된 장갑병력수송차량, 전투차량, 차륜형 전투차량, 경장갑차량, 전술차량, 자주포, 로켓발사기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 또한 전체 체계에 대한 설계능력을 갖추고 있고 변속기와 디젤엔진까지 생산이 가능하며 정비, 보수, 창정비 능력도 탁월하다.
- 폴란드의 주요 지상체계 생산업체는 국영기업이다. 주업체로는 PGZ SA로 통합된 지상무기체계 생산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Wojskowe Zakłady Mechaniczne, WZmot, Jelcz 등 이다.

라. 함정건조 분야

- 폴란드는 국내 조선소에서 해군 및 상선의 설계와 제작, 수선, 개조, 정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주요 조선소는 국영기업인 Stocznia Marynarki Wojennej, Nauta, 이 있으며, 민영기업인 Damen Shipyard, 그리고 2002년 민영화된 Remontowa Gdansk Ship Repair Yard가 있다.
- 구소련 시절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전환 시 폴란드 조선분야는 가장 큰 변화에 직면하였다. 현재 폴란드 조선업은 상선 건조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국제시장

9) IHS Jane's > Mexico 자료.

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폴란드는 함정 건조 외에도 수중 탐색체계와 기뢰 대항체계 그리고 어뢰관련 기술 등 일부 해상체계 생산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폴란드는 해상무기체계의 광범위한 국가 소요를 충족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며, 진보된 함정설계 기술, 해상 구조물, 잠수함 설계 및 제작 분야는 해외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 C4 분야

- C4 분야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는 신흥 국가와의 통신영역의 교류, 비교적 높은 국방 R&D 투자, 구소련연방시절부터 지속된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개선노력의 산물이다.
- 폴란드는 레이더체계, 통신체계, 지휘통제기술, 방공 및 미사일방어체계, 전자광학기술, 해군의 센서 및 감시체계 그리고 낮은 수준의 무인항공체계기술을 갖추고 있다.

바. 주요 방산업체

(1) 주요 방산업체

<표 13> 폴란드 주요방산업체 현황

업체명	구분	내용
Polska Grupa Zbrojeniowa (폴란드 무기 그룹)	취급 분야	방공 및 대공 체계, 무인 차량, 지휘 지원 및 전장 이미징, 소형무기, 로켓 및 대포
	소유주	국가 소유의 60개 업체 컨소시엄
	주소	ul. Nowy Świat 4a, 00-497 Warszawa
	전화번호	+48 734 178 863
	URL	http://pgzsa.pl/
Cenzin	취급 분야	PGZ의 자회사로 무기, 군사장비의 수출 및 수입과 서비스 및 기술이전 제공
	소유주	정부
	주소	ul. Czerniakowska 81/83, 00-957 Warszawa
	전화번호	+48 22 43 44 133
	URL	http://www.cenzin.com/
Cenrex	취급 분야	군사, 경찰, 예리한 무기, 사냥, 스포츠를 위한 제품 및 가스, 불꽃 제품
	소유주	정부
	주소	Ul. Poligonowa 30 04-051 Warszawa
	전화번호	+48 22 332 72 00
	URL	http://www.cenrex.pl/

업체명	구분	내용
Huta Stalowa Wola (HSW)	취급 분야	박격포, 곡사포, 대포, 로켓탄 발사기 등 폴란드 군 현대화를 위한 대규모 조달업체
	소유주	민간
	주소	ul. gen. Tadeusza Kasprzyckiego 8, 37-450 Stalowa Wola.
	전화번호	+48 15 813 42 15
	URL	http://hsw.pl/
WB Electronics	취급 분야	전자 제품, 전자 부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단말기, 데이터 전송 장비 및 군사 시스템의 디자인 및 생산과, 통합 및 컴퓨터화된 지휘 및 포병 화력 제어 체계
	소유주	민간
	주소	ul. Poznańska 129/133, 05-850 Ożarów Mazowiecki
	전화번호	+48 22 7312703
	URL	http://wb.com.pl/
SZCZĘŚNIAK Pojazdy Specjalne	취급 분야	장갑 트랙터, 공병 차량, 지휘 차량, 대형 바퀴가 달린 후송 차량
	소유주	정부
	주소	ul. Bestwińska 105A 43-346 Bielsko-Biała
	전화번호	+48 33 827 3400
	URL	http://www.psszczesniak.pl/

(2) 일반 방산업체

<표 14> 폴란드 일반 방산업체 현황

업체명	구분	내용
Lubawa	주요 품목	방탄조끼, 방탄, 군 및 경찰용 천막 등
	소유주	민간
	주소	ulitsa Dworcowa 1PL-14-260 Lubawa, Poland
	URL	http://www.lubawa.com.pl
Przemyslowy Instytut Automatyki i Pomiarów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for Automation and Measurements)	주요 품목	지상무인체계, 대테러장비 등
	소유주	정부
	주소	Aleje Jerozolimskie 202, PL-02-486 Warszawa (Warsaw), Poland
	URL	http://www.piap.pl/www.antiterrorism.eu

제2절 국방조달 최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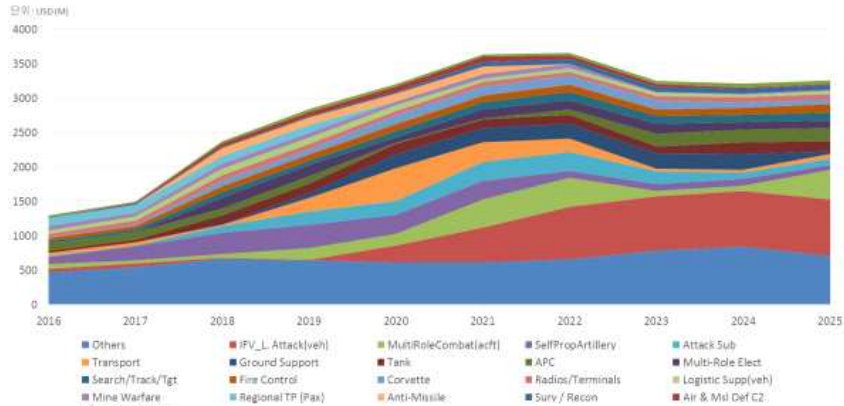
1. 주요 장비 획득계획¹⁰⁾

- 2016-2025년까지 폴란드 군 주요 장비 획득 규모는 미화 282.87억 달러 규모이며,

10) IHS Jane's Market Forecast 자료(2016. 9월말 기준)

가장 많은 획득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병전투차량이 40.8억 달러이고, 다음은 다목적 전투기로 19억 달러, 자주포 18.67억 달러, 잠수함 14.53억 달러 순이다.

○ 그 외에 수송기, 지상지원장비, 전차, 장갑차 등이 주요 획득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그림 1> 폴란드 군 주요 장비 획득계획

<표 15> 폴란드 군 주요 장비 획득계획

금액 : 미화 백만 달러

구분/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Others	466.6	542.87	669.14	640.6	615.63	609.81	656.49	785.36	843.55	702.11	6532.2
IFV LAttack(veh)	53.58	53.02	15.76	13.89	240.79	509.25	767.78	788.41	809.04	829.67	4081.2
Multi Role Combat(acft)	71.69	47.84	47.62	165.57	168.86	408.49	418.8	74.6	74.38	428.67	1906.5
Self Prop Artillery	98.24	204.69	310.68	338.88	280.52	268.45	100.14	101.29	98.4	65.78	1867.1
Attack Sub	12.92	12.92	103.02	194.16	196.24	277.07	280.02	188.46	95.87	92.61	1453.3
Transport	44.9	44.82	15.32	198.22	478.71	285.11	191.82	34.11	34.9	68.35	1396.3
Ground Support	1.38	1.38	1.38	67.01	200.84	208.56	216.28	224.01	231.73	42.56	1195.1
Tank	31.29	38.16	133.41	140.63	153.64	126.78	126.04	100.44	170.58	148.16	1169.1
APC	103.67	105.05	104.59	104.88	13.36	13.36	81.06	183.59	186.03	188.47	1084.1
Multi-Role Elect	6.55	7.57	150.09	167.06	77.45	132.84	128.28	150.27	107.44	109.7	1037.3
Search/Track/Tgt	32.91	37.09	85.09	59.84	98.27	103.87	124.72	116.78	106.93	118.23	883.7
Fire Control	40.97	47.02	86.64	92.9	93.43	96.36	105.81	88.52	104.02	119.19	874.9
Corvette	6.52	13.08	78.69	77.16	135.01	128.84	130.17	130.09	70.49	69.75	839.8
Radios/Terminals	59.09	67.57	79.7	73.43	62.55	64.77	59.72	65.63	79.25	80.59	692.3
Logistic Supp(veh)	45.41	58.19	92.6	93.58	80.71	49.7	49.99	50.65	41.56	41.59	604.0
Mine Warfare	67.56	54.12	74.43	69.58	58.56	66	61.79	9.8	14.73	13.49	490.1
Regional TP(Pax)	114.72	114.72	114.72	114.72	0	0	0	0	0	0	458.9
Anti-Missile	0.01	0.01	109.22	109.62	110.02	110.42	1.62	1.62	1.62	1.62	445.8
Surv/Recon	7.95	13.09	17.99	17.54	25.62	68.5	66.88	65.67	70.49	71.33	425.1

구분/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Air&Msl Def C2	2.75	21.9	54.34	61.32	76.49	75.32	55.68	47.84	14.73	12.8	423.2
Battle Mgm tC2	28.42	13.45	28.34	45.09	43.4	33.48	34.67	43.49	54.83	52.5	377.7
Others	466.6	542.87	669.14	640.6	615.63	609.81	656.49	785.36	843.55	702.11	6532.2
합계	1297.1	1498.6	2372.8	2845.7	3210.1	3637.0	3657.8	3250.6	3210.6	3257.2	28237.4

2. 주요 획득사업11)

가. 개요

- 폴란드는 지난 2012년에 2013-2022년 장기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의 주요 핵심은 다층의 중거리 방공 및 미사일 방어 능력 구축, 해군 자산 확충, 구 소련시대의 지상장비 교체이다.

나. 육군

- 폴란드의 지상 및 기갑무기체계는 구소련연방 시기의 장비들이 대부분이다. 이 장비들은 현대화가 계획되었거나 향후 10년 동안 새로운 장비로 교체될 예정이다.

- 2013년 발표된 현대화 계획사업은 아래와 같다.

- Universal modular tracked platform (UMPG) : USD 2.84 billion
- Leopard 2A5 Main Battle Tank (MBT) : 105대, USD 253 million
- Leopard 2A4 Main Battle Tank (MBT) 성능개량 : EUR 480 million
- Rosomak Armoured Personnel Carrier (APC) : 307대, USD 544 million
- MS-20 Daglezja 전술교량 : 7세트, - 다목적 경전술차량(4×4) : 882대
- Pegaz (Pegasus) 다목적 차량 : 500대, - WR-300 Homar 자주식 다련장 로켓 발사대
- Kryl 155mm 자주포

- 2016년 10월에 발표된 3개년 군현대화 계획에 포함된 주요 지상장비 및 SW사업은 다음과 같다.

- 대공작전 프로그램
 - 중거리 방공체계(WISLA) : 2019-2022년,
 - 단거리 방공체계(NEREW) : 2021-2022년
 - 자주 초단거리 대공체계(PORAD) : 2018-2021년
 - 휴대형 대공미사일(PIORUN) : 2017-2022년

11) 폴란드 국가중기계획 「The 2013 to 2018 National Defence Programme (Programa Sectorial de Defensa Nacional: PSDN)」, IHS Jane's 자료.

- C4ISR
 - 대대급 지휘통제 체계(BMS) : 2019-2022년
- 기갑 체계화 전력 현대화
 - LEPPARD Tanks 2A4 현대화 : 2018-2021년
 - 경전차(Direct Support Vehicle)(GEPARD) : 2022년-
 - 보병전투차(BORSUK) : 2021년-
- ROSOMAK 기반 프로그램
 - ROSOMAK : 2016-2020년
 - ROSOMAK 기반 전투차량(Turret ZSSW-30, Spike 발사대) : 2022-2023년
- SPIKE 미사일
 - ROSOMAK용 SPIKE LR DUAL 미사일 발사 : 2018-2021년
- 개인전투 장구(TYTAN)
 - 개인전투 장구 : 2020-2022년
- 로켓 및 포병 전력
 - 155mm KRAB을 포함한 모듈형 대대(Regina) : 2017-2022년
 - HOMAR를 포함한 유도형 다련장 포대 : 2019-2022년
 - 120mm 박격포 RAK을 포함한 포대 : 2017-2019년
- 순찰,정찰 전력
 - 정찰차량(ZMIJA) : 2020-2022년
 - 경무장 정찰 수송차량(KLESZCZ) : 2021-2022년
 - 정보 수집,분석,분배 ISTAR 체계 SOWA : 2018-2022년
 - 원거리 체계에서 수집된 정찰 정보의 자동 수집, 보관, 처리 및 분배체계 (PAJAK) : 2018-2022년

다. 해군

- 폴란드 해군은 기존 해군함정의 퇴역에 따라 광범위하게 새로운 함정으로 현대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 2016년 10월 발표된 3개년 군현대화 계획에 포함된 주요 함정사업은 아래와 같다.

- Project ORKA(디젤 잠수함) : 2024-2026년
- Project Miecznik (Swordfish)(2,500톤급 연안경비함) : 3척, 2021-2026년
- Czapla (Heron) OPV(2,000톤급 소해, 정찰, 수로탐색 및 재난구조함) : 3척, 2021- 2026년
- Project 258 Kormoran II MCMV(소해함) : 3척, 2016-2021년
- 연료보급함 : 2020-2022년

라. 공군

- 폴란드 공군은 록히드마틴사의 F16 C/D 블록52 전투기와 러시아의 개량형 MIG-29, SU-22 항공기가 혼합 편성되어 있다.
- 폴란드는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5세대 전투기를 구매할 계획이며, 기존항공기의 일부는 도태되고 일부는 성능개량을 할 계획이다.
- 2016년 10월 발표된 3개년 군현대화 계획에 포함된 주요 공군사업은 아래와 같다.
 - 5세대 다목적 전투기 : 64대, 2014-2022년
 - 공격 헬리콥터 : 32대, USD 3.8 billion, 2019-2022년
 - 중형 수송헬리콥터 : 70대, 2018-2022년
 - 대잠 및 해상 감시정찰 헬리콥터 : 12대
 - 급유기 : 2019년 요구소요 발표 예정
 - 고등훈련기 : 8대, 이탈리아 Alenia Aermacchi사의 M-346으로 결정 2017년까지 납품 예정
- 2016년 10월 발표된 3개년 군 현대화 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찰전력 사업은 아래와 같다.
 - 정찰전력(Image and Satellite)
 - 수직이착륙 소형드론(WAZKA) : 2018년-
 - 드론(MIKRO) : 2017년-
 - 단거리 드론(ORLIK) : 2020년-
 - 중거리 드론(GRYF) : 2020년-
 - 소형드론(WIZJER) : 2020년-

- 중고도 장시간 체공 드론(MALE) ZEFIR : 2020년-

마. 기타

- 60밀리 박격포와 저격용 소총, 유탄발사기 등이 사업진행 중이다
- 타이탄 미래병사체계 사업 : 2013 ~ 2022년
- UAV체계 및 훈련용 시뮬레이터 : 2013 ~ 2022년
- 2016년 10월 발표된 3개년 군 현대화 계획에 포함된 주요 기타 장비 사업은 아래와 같다.
- 사이버 방호 : 2018-2022년
- 암호지원 : 2017-2022년
- 통신장비 : 2017-2022년
- 방호장비 : 2017-2019년
- 개인전투장비 : 2017-2019년
- 야시경 : 2017-2019년
- Off Road 차량 : 2018-2022년

3. 최근(2006년~2015년) 무기 수출입 현황¹²⁾

가. 수입

- 폴란드는 2006~2015년간 미화 총 32.19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수입하였다.
- 주요 수입국은 미국으로부터 18.41억 달러를 수입하였고, 다음으로 핀란드 3.91억 달러, 이태리 2.41억 달러, 독일 2.20억 달러, 스페인 1.08억 달러 순이었다.

<표 16> 폴란드의 무기 수입현황

미화 백만 달러 기준(1990년 고정가 기준)

국가/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Austria								1			1
Canada		4	4				6	4	2	2	22
Czech Republic	53	53	28	35	41	17	53	53	46	12	391
Finland		13	13	13	13	13	13	0			78

12) 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 Poland 자료

France								161	59	59	220
Germany (FRG)	6	11	11	11	11	11	11	9			81
Israel	28	28	14	21	28		28	28	28	38	241
Italy	10										10
Norway						12	12	15	11	15	65
Russia			19		20	14					53
Spain		24	24				36	24			108
Sweden	20	8	3	3	4	11	34	10	3	2	98
United Kingdom							10				10
United States	346	850	480	87	41	16	16		1	4	1,841
합계	463	991	596	170	158	94	209	154	252	132	3,219

나. 수출

- 폴란드는 지난 2006~2015년간 미화 총 8.31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수출하였다.
- 주요 수출대상국은 인도로서 미화 3.30억 달러를 수출하였고, 그 다음으로 말레이시아 1.73억 달러, 미국 1.59억 달러 규모였다.

<표 17> 폴란드의 무기 수출현황

2015년 불변가, 미화 백만 달러 기준

국가/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Algeria									20		20
Georgia		8									8
India	218	101						11			330
Indonesia		8		9							17
Iraq	63	23									86
Jordan									3	3	6
Lithuania									1	11	12
Malaysia		23	73	58	19						173
Philippines							10	10			20
United States			8	8	8	14	121				159
합계	281	163	73	75	27	8	24	142	24	14	831

4. 국제 방산협력 현황¹³⁾

가. 프랑스

- 양국관계 개관
- 양국은 EU 와 NATO 회원국이며, 2008년 프랑스-폴란드 간의 ‘전략적 방위협

13) IHS Jane's 14 September 2016

정'을 체결하였고, 양국은 독일과 함께, 이른바 ‘바이마르(Weimar)’ 방위협의체 회원국임

○ 방산교역의 연혁

- 2015년 에어버스社의 헬기(H225M)와 수송기(C295)공급으로 방산교역이 활발해졌음

○ 국방협력

- 2008년 ‘전략적 방위협정’을 체결하였음

○ 미래 방산교역의 예측

- 프랑스와의 방산교역은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나. 독일

○ 양국관계 개관

- 양국관계는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악화 상태였으나, 1990년대 초 독일 통일 이후 극적으로 관계가 개선됨 (1991년 독일-폴란드 “우호 및 협력조약” 체결)
- 최근에는 EU 내에서 다소 관계가 손상됨

○ 방산교역의 연혁

- 지난 10년간 대규모로 독일 군수품/무기가 폴란드에 수출되었으며, 대표적으로 MEKO-A100 연안순찰정, Leopard2 주력전차 등이 수출됨
- 2016년 폴란드 다목적 차량 사업에 참가할 목적으로 독일 Rheinmetall사와 폴란드 KMW사가 합작법인을 설립했음

○ 국방협력

- 양국은 EU와 NATO의 회원국이며, 또한 “바이마르 방위협의체” 회원국임
- 많은 방산협력 사업이 양국업체 간에 진행 중이며, 대표적인 사례로 Remog사와 MTU사의 엔진 관련 협력을 들 수 있고, 독일은 폴란드에 장갑차량 및 기타 군수품에 대한 원조를 하고 있음

○ 미래 방산교역의 예측

- EU 내에 있는 정치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다. 이스라엘

○ 양국관계 개관

- 양국 정부 간의 돈독한 관계로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 방산교역의 연혁

- 폴란드는 이스라엘로부터 AeroStar사의 UAV, Spike-MR/Spike-LR 대전차무기, C4ISR 등을 획득한 바 있음

○ 국방협력

- 1994년 폴란드-이스라엘 간의 방위협정 체결이 2004년, 2007년, 그리고 2011년에 갱신되면서 내용이 보장되었으며, 최근 C4ISR과 위성통신협력 강화 목적의 합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음
- 또한 특수전 합동 훈련과 F-16 전투기 조종사 교환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폴란드 정부에 방산협력 강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음

○ 미래 방산교역의 예측

- C4 체계와 무인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됨

라. 이탈리아

○ 양국관계 개관

- 양국은 EU와 NATO의 회원국으로,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방산교역의 연혁

- 지난 10년간 이탈리아는 폴란드에 Air Search Radar, 해상전투체계, 디젤발전기 등을 제공하였으며, 폴란드 공군 훈련기 입찰에서 이탈리아 핀메카니카사의 M-346 훈련기가 선정됨

○ 국방협력

- 2012년 3월 폴란드-이탈리아 정부 간에 방위산업 및 군사기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이탈리아 방위산업 그룹 핀메카니카사의 자회사인 Augusta Westland사의 헬기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폴란드 PZL-Swidnik사를 소유하고 있음

○ 미래 방산교역의 예측

- 이탈리아와의 방산교역은 향후에도 긍정적으로 전망됨

마. 러시아

○ 양국관계 개관

- 역사적으로 양국은 호의적인 관계보다 적대 관계의 기간이 많았으며, 최근에도 에너지 문제, 미국의 BMD Shield 미사일 배치로 민감한 관계에 있음

○ 방산교역의 연혁

- 소련 붕괴 전까지 폴란드는 러시아 무기체계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음
(예: MiG-29, Su-22, T-72 전투기)
- 폴란드 정부는 2022년 까지 목표로 기존 러시아 무기체계 신규 무기 체계로 대체 예정이며, 최근 5년간 획득된 무기체계 중 러시아 무기체계는 항공 무기에 한정되고 있음
- 국방협력
 - 소련 해체 이후 극히 제한적이며, 폴란드는 NATO 및 EU 가입국으로 서방세계와의 협력을 더욱 증진하고 있다.
- 미래 방산교역의 예측
 - 폴란드의 전략적 측면을 고려할 때 부정적임

바. 영국

- 양국관계 개관
 - 양국관계는 호의적이고 교역 관계가 밀접하며 방산협력도 물색 중임
- 양국 교역 현황
 - 영국은 폴란드의 제2의 큰 수출시장으로서, 영국에 대한 수출규모는 약131억 달러(2013년 기준)이고, 영국의 대 폴란드 수출규모는 약 56억 달러(2013년 기준)임
- 방산교역의 연혁
 - 1990년대 영국 Marconi Marinet사의 AS90 155mm 포를 폴란드 Huta Stalowa Wola사에 라이선스 면허생산 승인 후 방산교역은 없음
- 국방협력
 - 2010년에 양국 간의 방위사업협력 및 축진을 위해 첫 논의가 시작되었음
- 미래 방산교역의 예측
 - 영국과의 방산교역은 상호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사. 미국

- 양국관계 개관
 - 소련체제 붕괴 이후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친미 정책”을 추구하면서 미국을 안보의 후견국으로 간주하고 있음

-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으로 미국과의 안보 협력성이 증대되었으며, 미국은 위기대응을 위해 폴란드와 군사협력 증진을 발표하였음
- 방산교역의 연혁
 - 지난 10년간 미국은 폴란드 군수품의 핵심 공급 국가였으며, 미국의 정치적 및 전략적 영향으로 폴란드에 다양한 무기를 제공하였음
 - 2000년과 2010년 사이 미화 43억 달러 상당의 군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 폴란드는 미국의 패트리엇 시스템(중거리 미사일)을 구매하였음
- 국방협력
 - 양국 간에 밀접한 군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NATO 회원국으로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2011년 양국 간 탄도미사일 협정을 비준하였음
 - 2010년 사이버 국방협력에 합의하였으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설정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음
 - 이외에도, 양국 간의 군사적 관계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 정보 공유, 정비분야 협력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음
- 미래 방산교역의 예측
 - 양국의 깊은 우호 관계로 방산교역 역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아. 브라질

- 양국의 국방관계 강화를 위한 합의문이 2010년 12월에 체결되었으며 브라질에 폴란드 무관을 파견하였다.
- 관계 진척을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브라질 업체의 폴란드 방산시장 진출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자. 중국

- 2009년 12월 양국 국방장관 간 군사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주로 종합군수지원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예: 군 의학, 군사 과학, 연구프로그램, 교육 및 훈련 등)
- 중국은 폴란드를 잠재적인 방산 유망시장으로 판단하고 있다.

차. 인도

- 2010년 양국 총리 간에 국방협력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폴란드의 군수품을 인도에게 공급하고 기술이전을 전제로 한 양국 합작법인을 설립하였다.

카. 인도네시아

- 2013년 9월 방산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타. 사우디아라비아

- 2013년 12월 양국 간의 방산교역 진흥과 프로젝트 합작을 위한 방산협정을 체결하였다.

파. 세르비아

- 2012년 8월 양국 국방장관 간에 군사교육과 방산협력을 주제로 논의가 있었다.

하. 스페인

- 2013년 7월 다양한 군사 분야의 협력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거. 우크라이나

- 2012년 이래 매2년마다 방산협력을 위한 회담을 가지고 있으며, 2014년 폴란드 방산업체 Lubawa사와 우크라이나 Ukroboronprom사 간에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너. 베트남

- 2010년 9월 양국 총리간 정부 간 국방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5. 한국과의 방산협력 현황

가. 방산협정

- 한국(방위사업청)-폴란드(국방부) 간 군수품과 용역에 대한 정부품질보증 상호수락에 관한 약정 체결 : 2009. 12월
- 한국-폴란드 간 국방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 2013. 10월
 - 정상회담을 통하여 양국 간 국방·방산을 포함한 제반 분야 협력 방안 논의
- 한국(방위사업청)-폴란드(국방부) 간 방산협력 약정 체결 : 2014. 5월
 - 제1차 방산·군수협력공동위 개최 / 폴란드

나. 수출·입 현황

- 한국→폴란드 : K-9 자주포 차체 및 기동장비 부품류 등
- 폴란드→한국 : 없음

제2장 국방조달 관련 법규 및 조직

제1절. 관련 법규

제2절. 국방조달 조직

제3절. 입찰 제도 개요

제2장 국방조달 관련 법규 및 조직

제1절 관련 법규

- 폴란드는 EU회원국으로서 타 회원국과 동일하게 유럽연합(EU) 법률, 유럽연합 기능 조약 제346조, 2009/81/EC지침- EU 방위안보조달 지침을 따르며 이와 관련된 국내법으로 공공조달법, 국방부 장관 지침 등을 따른다.
- (유럽연합(EU) 법률) 유럽연합(European Union : 이하 EU)의 공공조달 정책은 EU 집행위원회 산하 총괄국(Directorate-General Growth)이 관할하며, 동 정책은 EU라는 공동시장에서 공공조달관련 발주처에게 공동으로 적용되는 공공구매 제도를 규율한다.
 - 이에 따라 EU회원국은 EU법률의 파생 법규로 정해진 특별법(EU지침서)을 회원국의 국내제도에 도입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며, 공공조달에 관한 유럽연합의 지침서는 입찰의 투명성, 공개경쟁입찰, 수주 및 계약 체결절차의 적절한 관리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있음
- (2009/81/EC지침) 유럽의회 및 이사회가 2009년 7월 13일 제정한 EU의 방위안보 조달 지침으로서 군사장비 공급, 민감한 군사장비 부품 공급, 군사와 관련된 직접 공사, 물품 공급 및 용역서비스, 특별한 군사 목적의 공사 및 서비스 또는 민감한 공사 및 서비스에 적용한다.
 - 이 지침의 범위는 유럽연합 기능 조약 제346조에 규정되어 있음
- (유럽연합 기능 조약 제346조) 국방 및 안전 분야에서 공공조달 시장 진입의 원칙(평등 대우 원칙과 공공조달의 경쟁)에 있어 상당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회원국 안전이라는 기본적인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경우, 국내 국방조달은 위에 언급된 2009/81/EU 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조치는 EU 내부시장 입찰경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재 제346조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가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이익이라는 범위로 제한되어있으며, 1958년에 작성된 군사장비 목록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이 목록¹⁴⁾은 1958년 4월 15일에 채택되었지만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음

- (공공조달법) 폴란드 공공조달 시스템에는 국방 및 안전 분야 조달의 별도 제도가 있으며, 군사장비, 민감한 장비, 이와 관련한 공사, 물품 공급 및 서비스, 특별한 군사적인 목적을 위한 공사 및 서비스, 그리고 민감한 공사 및 서비스 구매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 (국방부장관 지침) 공공조달 법규를 제외하고, 즉 유럽연합 기능 조약의 제346조 아래 진행되는 입찰절차는 2015년 9월 14일 국가 안전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국방부 공공조달에 관한 국방부 장관 결정 367/MON번에 기반하여 진행된다.
 - 원칙적으로 군사 장비 조달은 공공조달 법률에 근거해야 하나, 조달이 국가 보안의 기본 이익 보호와 연관되는 특별한 상황에 본 법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공공조달은 국가 안전에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국방부 공공조달에 관한 2015년 9월 14일 국방부 장관 지침(367/MON)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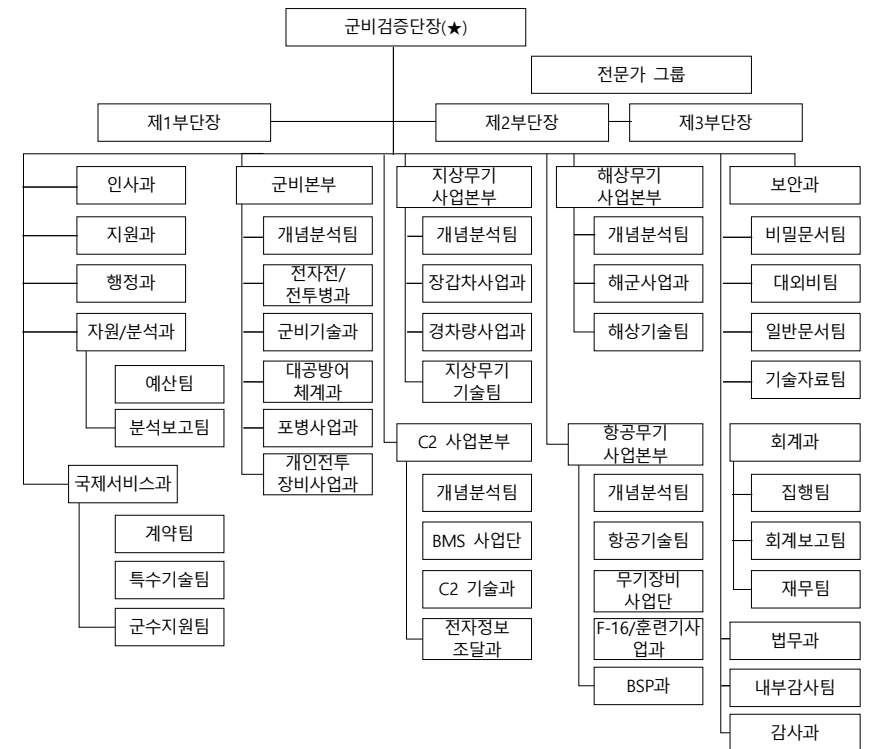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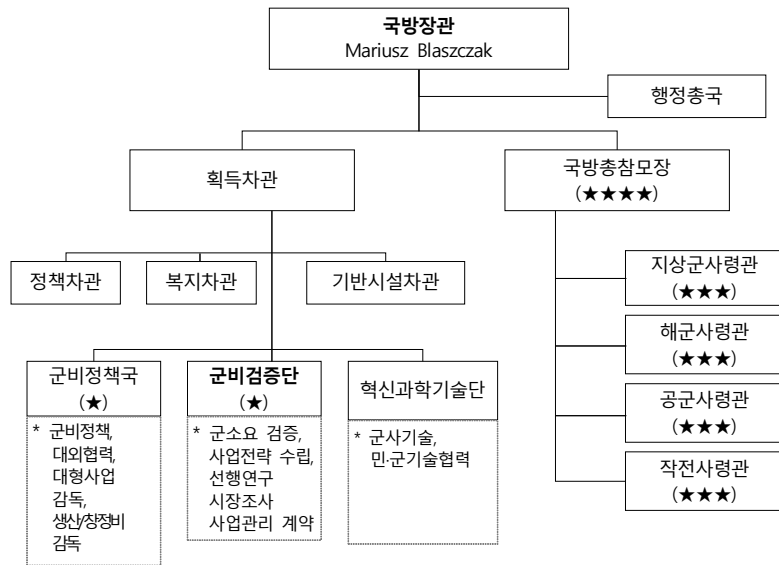
제2절 국방조달 조직

1. 국방 조직

- 폴란드 국방 조직은 국방장관예하에 방위력개선업무를 담당하는 획득차관(1차관)과 군사력을 운용하는 국방총참모장이 편성되어 있다.
- 실질적인 방위력 개선업무는 획득차관(1차관) 예하 ‘군비검증단’에서 이루어지며 군소요 검증, 사업전략 수립, 선행연구, 시장조사, 사업관리 및 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폴란드 국방부 주요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¹⁵⁾

14) 코콤 (Co-Com)이라고 불리는 대공산권 수출 통제 위원회가 채택한 국제 군사 장비 목록 (International Munitions List)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 하지만 이 목록은 회원국에 통보는 하지만 공개하지는 않는다.

15) 국방무관 제공 자료



제3절 입찰제도 개요¹⁷⁾

1. 국가계약의 기본원칙 및 분류

- 민간 회사와 공공 발주처 또는 공공 자금 지원받는 다른 기관과의 계약 체결과 관련된 원칙은 2004년 1월 29일 공공조달법을 따른다.
- EU의 공공조달 입찰 유형은 공개입찰(open procedure), 제한입찰(restricted procedure), 지명입찰(negotiated procedure), 경쟁협의입찰(competitive dialogue)이 있다.
- 발주처가 유럽 연합 기업과 그밖에 기업의 참여 조건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으며, 비유럽 연합 기업은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2. 국방조달 기본원칙

- 국방 및 국가 안전에 관련한 연구 및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절충교역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국가안전의 기본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내 조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특히 민간업체보다 국영 방산업체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3. 전자 입찰 체계

- 공공조달법에 의하면 발주처가 공공조달 계획을 공지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유럽연합 법률 신문(<http://ted.europa.eu/>) 또는 발주처 공식 사이트의 구매자 프로필에 공지할 수 있다.
- 발주처는 주로 입찰 제안서 또는 입찰절차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공공조달에 대한 사전 정보를 공지한다.
- 유럽연합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조달은 전자경매(electronic auction)로 이루어지며 상황에 따라 전자입찰절차(electronic bidding procedure)를 적용한다.
 - EU 공공조달 인터넷 안내 참조 : http://europa.eu/youreurope/business/public-tenders/rules-procedures/index_en.htm.
 - EU 공공전자조달 홈페이지 : http://www.e-pps.eu/view_category.php?catid=87



<그림 4> EU 공공조달전자체계 홈페이지

4. 국방 절충교역 제도¹⁸⁾

- EU는 2009년 EU 국가 간의 절충교역 관련 법령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유럽연합 기능 조약의 제346조에 따라 자국의 정책에 의해 절충교역을 시행하는 것은 예외를 인정하였다.(유럽연합 기능 조약의 제346조)
- 코모로브스키 대통령은 2014년 7월 7일 새로운 절충교역법에 서명, 1999년 국방안보관련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보상법을 대체하였다. 이에 따라 폴란드는 대형 국방조달사업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절충교역을 요구하고 있다.
 - 새로운 절충교역법에 따라 국방조달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조달 물품에 대한 기술의 이전까지 전제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절충교역의 핵심은 공공기금이 해외 제조사로부터 무기 및 장비를 구매할 경우 국방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며, 해외 공급자는 국방산업 투자 같은 특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서, 생산지 이전 또는 기술 이전
 - 절충교역 법에는 절충교역 계약을 체결하는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절충교역 법의 제7조에 따라서 절충교역 계약은 해외 공급자의 절충교역 제안을

17) KOTRA 수집자료 (폴란드 2016년 9월 30일 기준)

18) IHS Jane's 14 September 2016과 KOTRA 수집자료 (폴란드 2016년 9월 30일 기준)를 종합하여 작성

기반으로 협상 진행 후 체결함

- 절충교역제안서는 국방부 장관에게 제안서 제출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함(절충교역법의 제8조 제5항)
- 발주처가 선택한 해외 공급자는 절충교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과 협상을 진행함 (절충교역 법의 제8조 11항에 따라서 공급 계약은 절충교역 계약이 발효되기 전에 체결될 수 없음)
- 향후 진행되는 국방 관련 계약에서 핵심적인 조건은 해당 제품이 최대한 폴란드화된 제품이어야 하며, 이는 핵심 부품을 폴란드에서 생산하거나, 해당 전략물자의 사후 서비스, 수리, 현대화 부문을 폴란드 기업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 폴란드의 절충교역 목록은 폴란드 개발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 홈페이지 : https://www.nr.gov.pl/strony/zadania/bezpieczenstwo-gospodarcze/offset/#Umowy_offsetowe.

제3장

입찰 참여 방안

제1절. 입찰 사전 준비사항

제2절. 입찰 참가 절차

제3절. 입찰 심사

제4절. 낙찰자 결정 심사방법

제5절. 낙찰자 통보

제6절. 계약 및 사후관리

제3장 입찰 참여 방안¹⁹⁾

제1절 입찰 사전 준비사항

1. 입찰 자격

- 폴란드에서 폭발물, 무기, 탄약 및 군사 또는 경찰 목적의 기술 제조 및 거래와 관련된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업권을 취득해야 한다.

2. 영업권

가. 영업권 발급권자

- 내무부장관이므로 내무부가 요구하는 의무를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영업권 발급대상 기업

- 국가 법원등록소에 지급 불능 채무자로 등록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한다.
- 영업권에 포함된 경제활동을 적합하게 할 수 있음을 보장하고 기술적 및 구조적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소견서를 제출한 기업이어야 한다.
 - 소견서는 권한 기관(경제부 장관의 시행령에 제시된 목록에 포함된 기관), 예를 들어서 소재지(Sulejówek)의 군사 장갑 및 차량 기술 기관(폴란드: Wojskowy Instytut Techniki Panczernej i Samochodowej w Sulejówku)이 발급함

다. 영업권 취득 조건

- 영업 해당 활동을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경제주체가 취득할 수 있으며,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두 명의 이사 임원 또는 한 명의 이사 임원과 회사 대리인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폴란드 또는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스위스 연방국 및 유럽자유무역연합국(EFTA) - 유럽경제지역(EEA) 조약국의 시민, 또는 폴란드에서 영주 허가 또는 유럽 장기체류 허가를 취득한 다른 국가의 시민으로서,

- 만 25 세 이상 고등학교이상을 졸업하고 완전한 법률행위 능력을 갖춘 자
-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 또는 조세 범죄 및 경범죄에 대한 유죄 선고 판결을 받지 않은 자
-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 또는 조세 범죄 및 경범죄에 대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자.
- 폭발물, 무기, 탄약 및 군사 또는 경찰 목적의 기술 제조 및 거래와 관련된 경제 활동 수행 및 총괄하는 직업 준비를 입증할 수 있는 자.
- 정신적인 장애가 없으며 정신 기능의 중요한 장애가 없어야 함. 이에 따라 정신 및 심리 건강 검진에 관한 건강 진단서와 정신 건강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영업권 취득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입증하려면 신청서 제출 시 영업권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기술 및 장비는 소방, 위생 보호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규에 지정된 요구를 충족한다는 다음과 같은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지역별 소방소장
 - 지역별 보건소장
 - 주정부 관할 환경 보호 검사관

제2절 입찰 참가 절차

1. 입찰 공고

가. 공공조달법 적용

- 발주처는 공공조달청 공식 사이트 공공조달 게시판에 입찰공고를 올려야 한다. (<http://bzp.uzp.gov.pl/Out/Search.aspx>) 그리고 유럽연합 법률신문 부록에도 공지해야 한다. (<http://ted.europa.eu/>)
- 또한 발주처는 자체 공식 사이트에 입찰공고와 관련 입찰서류를 올린다.

19) KOTRA 수집자료 (폴란드 2016년 9월 30일 기준)

<그림 5> 공공조달청 공공입찰 공고화면

<그림 6> 법률신문 공공입찰 공고화면

나. 국방부 장관 지침 적용

- 입찰공고는 공개적으로 발주하는 조달 절차에만 적용되며, 발주처 사무실 게시판에 공지하고 발주처 공식 사이트에 올린다.

2. 입찰 신청 서류

가. 공공조달법 적용

(1) 준비서류

- 제안서 또는 입찰 참여 신청서는 입찰서류, 중요한 조달 조건에 관한 양식 (Specification of Essential Terms of the Procurement; Terms of Reference; 폴란드 약어: SIWZ)을 참고하여 준비해야 한다.
- 제안서 또는 입찰 참여 신청서는 서면으로 제안서 제출 기간 안에 발주처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주처의 동의 아래 FAX 형태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때 제안서 또는 입찰 참여 신청서는 공인 인증이나 동등한 수단으로, 예를 들어서 e-PUAP의 신뢰 프로필로 확인된 안전한 전자 서명이 날인되어야 한다.
- 입찰 공고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업체는 제안서 또는 입찰 참여 신청서와 함께 발주처가 입찰 공고에 명시한 적절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업체는 입찰 조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예: 영업권, 허가, 라이선스), 경제적 및 재정적 상황을 확인하는 서류(예: 재무 보고서), 그리고 기술적인 인력적인 능력을 확인하는 서류(예: 수행했던 실적 등)를 제출한다.
 - 국방 및 안전 분야의 조달 시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 위기 상황 발생 시 업체가 증가된 수요를 만족하고 발주 목적물 공급의 유지, 개선 또는 조정의 보장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기술, 기기, 인력 수 및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확인서 또한 공급원에 대한 확인서, 추가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경우 지리적 문제해결 방안
- 업체 소속 국가의 법규에 대한 확인서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업체의 내부 규정 에 대한 확인서
- 유럽의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된 기관이 작성한 군사장비의 호환성을 확인하는 테스트 증명서 또는 보고서
- 정보보호, 조달 이행과 관련한 요구 조건의 충족을 보장하는 서류 및 확인서
- 기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포함되는 조달 같은 경우 발주처는 이러한 기밀 정보를 보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업체의 능력을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적합한 산업 안전 증명서 또는 기밀 정보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2) 제출 방법

- 입찰서류는 직접, 우편 서비스 또는 전자 통신 방식을 통해서 발주처에 제출할 수 있으며 사전 협의한다.

나. 국방부장관 지침 적용

(1) 준비서류

- 내무부로부터 취득한 영업권
- 폭발물, 무기, 탄약 및 군사 또는 경찰 목적의 기술 제조 및 거래와 관련된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허가 및 안전 증명서를 포함한 특정한 활동 또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점을 확인하는 서류
- 적합한 기술적인 능력과 조달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
- 폴란드 내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서류 및 경제적 및 재정적인 능력을 확인하는 서류
- 발주처는 제안하는 물품 공급이 제시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이외에도 발주처는 아래와 같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안하는 제품이 특정한 기준 및 기술 규격과 일치함을 확인하는 독립적인 기관의 인증서
 - 공급될 제품의 샘플, 설명 또는 사진, 등 발주처 요청 자료
 - 기밀 정보 보호 및 물품 공급을 약속하는 확인서 또는 서류
- 만약 업체가 외국국가 기업인 경우 그 국가에서 발급한 적합한 서류를 제출한다. 특정한 서류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업체는 공증인, 법원, 행정 기관, 직업 단체 또는 경제 단체가 작성한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제출 방법

- 일반적으로 입찰서류는 서면, 팩스 등을 통해 이루어지나 정확한 제출 방식은 발주처가 업체에 예비 제안서 제출 초대장이나 협상 초대장에 제시한다.

3. 입찰 보증

가. 입찰 보증 비율

(1) 공공조달법 적용

- 공공조달법을 적용할 때, 유럽연합의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 같은 경우 발주처는 업체에 조달 예상 가격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입찰 보증 제공을 요구해야 한다.

(2) 국방부 장관 지침 적용

- 국방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진행하는 조달절차에서 발주처는 조달 예상 가격의 0.5%에서 3% 금액의 입찰 보증을 정한다.

나. 입찰 보증 방법

- 입찰 보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 현금
 - 은행 보증(bank surety) 또는 공동 저금 보증, 이때 공동 저금 보증은 항상 현금 보증이어야 함
 - 은행 지급 보증(bank guarantee)
 - 보험 보증(insurance guarantee)
 - 2000년 11월 9일 폴란드 기업 개발청(Polish Agency for Enterprise Development; 폴란드 약어: PARP) 설립에 대한 법률에 정해진 주체의 보증
- 입찰 보증은 신청서 또는 제안서 제출 기간 안에 제공해야 하며 은행 지급 보증 또는 보험 보증 서류는 발주처가 입찰공고에 제시한 요구에 따라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3절 입찰 심사

1. 입찰 심사 절차

가. 공공조달법 적용 시

(1) 국방 조달 절차

- 국방 조달 절차는 공개 협상 절차(negotiations with publication procedure), 제한

입찰 절차(restricted tender) 그리고 유럽연합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²⁰⁾의 조달은 전자 경매(electronic auction)로 이루어진다.

- 특정한 상황에서는 경쟁적 대화 절차(competitive dialogue procedure), 비공개 협상 절차(negotiations without publication procedure) 및 직접 계약 절차(direct-award contract procedure) 또는 전자 입찰 절차(electronic bidding procedure)를 적용할 수 있다.

(2) 경쟁적 절차

- 공개 협상 절차, 제한 입찰, 그리고 경쟁적 절차는 2단계 절차를 적용한다. 관심이 있는 계약자는 우선 절차 참여 신청서(예비제안서)를 제출한다.
- 예비제안 입찰에서 발주처는 입찰 조건을 충족한 계약자들을 정해진 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 순서로 제안요청을 하면 요청받은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한다.
- 공개 협상 절차 및 경쟁적 대화 적용 시 업체는 입찰 참여 조건을 검토하고 발주처가 본 제안요청을 하기 전에 발주처와 협상을 하거나 업체가 제안하는 내용을 소개한다.

(3) 비경쟁적인 절차

- 비공개 협상 절차 또는 직접 계약 절차 같은 비경쟁적인 절차는 법률에 정해진 특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발주처는 제안서를 제출할 업체를 직접 선택한다.
- 비공개 협상 절차는 아래와 같은 경우 적용할 수 있다:
 - 발주 목적물이 오직 연구 및 개발 용도를 위한 물품인 경우
 - 제한 입찰, 공개 협상 절차 또는 경쟁적 대화로 진행한 공공조달 절차에 입찰 참여 신청서가 단 하나도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 위기 상황으로 인해 제한 입찰 또는 공개 협상 절차의 단축기간을 포함한 법규로 정한 기간을 지킬 수 없으며 시급히 공공조달을 발주할 필요가 있을 경우
 - 발주처의 과실이 아닌 예상할 수 없었던 이유로 제한 입찰 또는 공개 협상 절차의 단축기간을 포함한 법규로 정한 기간을 지킬 수 없으며 시급히 공공조달을 발주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적용
 - 서비스 및 물품 공급의 발주 목적물이 연구 및 개발 용도로 사용되고 국방 분

야와 연관되지 않으며 국가 안전의 기본적인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 해외 임무 수행에 관한 폴란드 군대의 항공 또는 해상 운송 서비스와 연관된 발주 목적물 같은 경우
- 이전에 제한 입찰, 공개 협상 절차 또는 경쟁적 대화 절차로 이행한 절차에 모든 제안서가 제외되었고 기존 입찰 조건에 비교하여 크게 변경되지 않았으며 본 절차에서 이전에 제한 입찰, 공개 협상 절차 또는 경쟁적 대화 절차로 이행한 절차에 제안서를 제출한 계약자를 모두 고려할 경우 적용된다.
- 직접 계약 절차는 아래와 같은 경우 적용할 수 있다.
 - 다른 법규 등에 의해 독점권 보호로 인하여 오직 한 계약자가 입찰 할 수 있을 경우
 - 다른 업체의 청산, 집행 절차 또는 파산 절차와 관련하여 물품 공급 조달을 특별하게 유리한 조건에 발주할 수 있을 경우
 - 물품 공급 조달이 유럽 경제 지역 회원국의 상품 거래소에서 이루어질 경우
 - 위기 상황으로 인해 제한 입찰 또는 공개 협상 절차의 단축기간을 포함한 법규로 정한 기간을 지킬 수 없으며 시급히 발주할 필요가 있을 경우
 - 발주처의 과실이 아닌 예상할 수 없었던 이유로 제한 입찰 또는 공개 협상 절차의 단축기간을 포함한 법규로 정한 기간을 지킬 수 없으며 시급히 공공조달을 발주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나. 국방부장관 지침 적용 시

(1) 조달 절차

- 조달 절차는 다수 업체와 협상 또는 단일 업체와 협상절차로 구분된다. 또한 대상 업체의 범위를 정할 수 없을 경우 입찰 공고를 통해 조달이 이루어진다.
- 발주처는 적합한 조달절차를 선택하고 제안서 제출을 요청할 업체를 정하며 계약 초안을 포함한 모든 입찰 제안요청 서류를 작성한다.

(2) 다수 업체 협상 절차

- 조달절차는 두 단계로 진행되며, 먼저 발주처가 예비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업체에 요청하면 업체는 가격을 제외한 예비 제안서를 제출한다
- 예비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업체는 입찰 참여 조건을 충족한다는 확인서를 같이 제출하고,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도 함께 제

²⁰⁾ 2015년 12월 28일 유럽연합 공고 사무실에 공고 전달 의무가 있는 조달 및 대화 금액에 관한 자료 이사회 시행령에 따라서 국방 및 안전 분야 조달의 유럽연합 기준 금액은 물품 공급 및 서비스는 418,000 EUR이고 공사는 5,225,000 EUR이다.

출한다. 제안서가 입찰서류에 제시된 조건을 만족할 경우 발주처는 업체를 협상에 초대한다.

- 협상 내용은 기밀로 보호되어야 하며, 양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 협상 진행 후 발주처는 최종 제안서 제출을 요청한다.

(3) 단일 업체 협상 절차

-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유일할 경우 적용되며, 해당 단일 업체를 협상에 초대한다.
- 협상 중에 양당사자는 향후 체결할 계약 내용을 정함. 만약 모든 계약 조항에 대해서 협상이 완료되지 않아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경우 발주처는 국방부 장관에게 협상 중에 정한 사항을 기반으로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재평가 후 변경된 사항에 따라서 발주처는 다시 조달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를 확인하고 단일 업체와 협상 절차를 통해서 발주하거나 입찰 공고를 기반으로 발주하거나 또는 조달절차를 취소한다.
- 만일 발주처가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를 확인할 수 없다면 조달은 절충교역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보를 포함한 입찰공고를 발표하고, 관심 있는 업체는 입찰 참여 신청서를 제출함. 그 후 발주처는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입찰 참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발주처는 다수 계약자와 협상 절차 또는 한 계약자와 협상 절차에 따라서 예비 제안서 제출 초대를 한다.

제4절 낙찰자 결정 심사방법

1. 제안서 심사 기준

- 2009/81/EC지침 국방 지침은 “조달은 투명성, 비차별 및 평등한 대우의 원칙을 보장하며 제안서는 효과적인 경쟁 조건 아래 평가됨을 보장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기반으로 발주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69 번 및 71 번)
- 따라서 이 지침에 기준할 경우 오직 두 적격 심사 기준, 즉 “가장 낮은 입찰가”와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제안”을 적용할 수 있다.
- 그러나 폴란드의 경우 국방조달의 적격 심사 기준을 (공공조달 법의 제131k 조)

별도로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 조달(공공조달 법의 제91조)보다 더 엄격하게 지정되어 있다.

- 국방 및 안전 분야의 조달에 제안 심사 기준은 입찰가, 품질, 기능성, 기술적 제한사항, 환경영향, 사회적 영향, 혁신적인 면, 서비스, 조달이행 기간, 운영 비용 등이며 발주 목적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 추가적으로 수익성(목적물의 구매 및 사용의 효율성), 물품 공급의 안전성(공급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검토), 상호 운용성, 총 수명주기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심사 기준은 심사방법과 함께 조달 조건에 관한 항목에 명시된다.
- 공공조달 법을 제외하여 진행하는 국방 조달 규정(367/MON의 결정)에 의한 제안서의 심사 기준은 입찰가, 품질, 기술적 제한사항, 총 수명주기 비용, 서비스, 조달이행 기간, 운영비 등이 포함되며 발주 목적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제 25조 11항) 또한 발주처는 공공조달 법에 제시된 심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절충교역 계약

- 절충교역 계약에 해당 될 경우 발주처는 절충교역 제안서 평가를 고려한다.

3. 중소기업 우대 정책

- 중소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처는 입찰절차를 준비하면서 항상 국방 조달에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 폴란드 법률은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와 관련하여 특별한 기준이나 지침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유럽연합 법률에는 회원국의 중소기업이 국방 및 안전 분야 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지침의 서문에 명시하고 있다.

제5절 낙찰 통보

1. 공공조달법 적용

- 발주처는 직접, 우편 서비스 또는 전자 통신 방식을 통해서 업체와 협의한다.
- 특히 입찰서류에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 입찰절차 제외 결정, 다음 단계 합

격 결정 또는 최고 제안서 선정 결정을 포함한 발주처의 모든 결정은 위에 제시된 소통 방식을 통해서 입찰절차 참여자에게 전달된다.

- 발주처의 중요한 결정은 발주처 공식 사이트에 공개되며, 최고 제안서 선정 결정은 공공조달 게시판에 공개되고 유럽연합 법률신문 부록에도 게시된다.

2. 국방부 장관 지침 적용

- 일반적으로 입찰 참여자와의 소통은 서면, 팩스 등을 통해 이뤄진다.
- 정확한 정보 전달 방식은 발주처가 예비 제안서 제출 초대장이나 협상 초대장에 제시함으로써 정해한다.

제6절 계약 및 사후관리

1. 계약의 기본원칙

- 공공조달법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공조달법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모든 계약은 민법을 준용한다.
- 국방부 장관 지침에 의하면 발주처가 조달규모 또는 조달 이행 날짜 같은 세부적인 조건을 정할 수 없을 경우 프레임워크 계약(일정한 규칙과 틀을 적용한 계약방식)을 체결하며 원칙적으로 10년 이하의 계약 기간으로 체결된다. 발주처는 프레임워크로 정한 조달에 관해서는 이 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이행 보증

-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업체는 계약이행 보증을 제공해야 하며, 보증 금액은 공공조달법을 적용할 경우 발주처가 계약금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하고 국방부 장관 지침에 따를 경우에는 계약금의 0.5%부터 10%까지로 정한다.
- 보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 현금
 - 은행 보증 또는(bank surety) 공동 저축 보증, 이때 공동 축금 보증은 항상 현금 보증이어야 함
 - 은행 지급 보증(bank guarantee)
 - 보험 보증(insurance guarantee)
 - 2000년 11월 9일 폴란드 기업 개발청(Polish Agency for Enterprise Development;

폴란드 약어: PARP) 설립에 대한 법률에 정해진 주체의 보증

- 국방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서 수주한 조달에는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입찰가가 상당히 증가할 경우 발주처는 이행 보증 요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선수금 지급

가. 공공조달법 적용 시

- 발주처가 입찰공고에 조달 이행을 위한 선수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선수금 제공이 가능하다.
- 업체가 비공개 협상 절차 또는 직접 계약 절차를 통해 선정되었다면 각 선수금의 금액이 조달 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않는다
- 발주처는 지급한 선수금 금액이 조달 가격에 20%를 초과하게 될 경우 지급한 선수금에 대해서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국방부장관 지침 적용 시

- 선수금 지급 원칙은 2001년 5월 25일 폴란드 군대 개조 및 기술 개선 그리고 자금 조달에 관한 법률(2001년 법률신문 76의 804번, 이후 개정 포함)이 정한다.
- 발주처가 선수금 제공내용을 조달 서류에 제시하였거나 계약자가 발주처가 지정한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서 선정되었을 경우 선수금 지급이 가능하다.
- 각 선수금의 금액은 계약 대금의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처는 선수금 지급 조건으로 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4. 하도급 업체 관련사항

가. 공공조달법 적용 시

- 발주처가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업체에게 맡기도록 계약자의 의무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입찰공고에 제시했을 경우 업체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때 업체는 하도급계약 입찰절차를 통해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한다.
- 더불어, 업체는 자체적으로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업체에게 맡기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서 하도급 업체에게 맡길 과업의 일부를 제시하며 하도급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그 업체도 제시한다.

- 두 경우 모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데 발주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나. 국방부장관 지침 적용 시

- 발주처는 해외업체를 포함한 하도급 업체에게 과업의 일부를 맡기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단 하도급 업체는 조달 이행에 필요한 지식, 경험 또는 기술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고, 하도급 업체에게 과업의 일부를 맡김으로써 국가 안전의 기본적인 이익이 피해를 보지 않을 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하도계약 이행의 세부적인 조건은 발주처가 예비 및 최종 제안서 제출 초대 또는 협상 초대에서 정한다.
- 발주처는 하도급 업체가 입찰 참여 조건, 특히 안전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입찰절차 중에 또는 조달 이행 중에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업체에게 맡기는 것을 중지할 수 있다.

5. 담보 책임 및 품질 보증

가. 담보 책임

- 업체의 담보 책임 및 품질 보증에 대한 책임의 원칙과 범위는 발주처가 지정한 다. 공공조달법 및 국방부 장관 결정에는 이와 관련된 특별조항을 제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주처는 민법을 준용한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의 지침은 발주처에게 품질 보증 및 담보책임 원칙과 이의 제기 절차를 정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 민법상 물품을 인도한 후 2년 또는 부동산 같은 경우 5년 안에 물질적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 업체는 이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발주처는 하자를 보완하거나 물품을 하자 없는 것으로 교환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업체가 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가격을 낮게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나. 품질 보증

- 담보 책임과 동시에 발주처는 품질 보증에 의한 권한을 이행할 수 있다. 품질 보증은 다른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물품을 인도한 후 2년간 유효하다. 품질 보증에 근거하여 발주처는 하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자가 보완 작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의무 불이행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6. 계약 해지

- 공공조달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의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여 계약 이행이 공공 이익에 상반될 경우 또는 지속적인 계약 이행이 국가 안전의 중요한 이익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발생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30일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본 법규에 근거하여 업체는 계약을 이행한 부분만큼의 대금을 받을 수 있다.
- 계약 자유 원칙에 기반하여 당사자는 발주처 또는 업체에 부여되는 계약 해지 권한을 정할 수 있다. 또한 계약 해지 권한은 민법에 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발주처는 조달을 완전히 이행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시 계약자에게 계약을 이행한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4장

한국과의 국방조달 입찰제도 비교

제1절. 제도

제2절. 조직/운영

제3절. 외국기업 개방성

제4장 한국과의 국방조달 입찰제도 비교

제1절 제도

- 한국과 유사하게 계약을 위한 입찰 기준, 낙찰 기준 등에 대해 제도화되어 있다.

<표 18> 폴란드와 한국 간의 제도적 측면 비교

구분	폴란드	한국	비교결과
조달 법규	• EU 및 폴란드 공공조달 법령 있음 • 국방부장관 지침 있음	• 정부 계약법령(구매, 임차, 서비스/건설 통합) 있음 • 방위사업청 내부 조달절차 있음	유사
입찰 절차	• 입찰자가 입찰절차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규정	• 입찰자가 입찰절차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규정	유사
입찰 기간	• 공공조달은 52일, 긴급시 36일 • 제한경쟁인 경우 36~40일로 사안에 따라 적용	• 조달소요기간은 일반장비 및 물자의 경우 입찰공고 후 2~3개월 이내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 무기체계는 입찰공고 후 계약체결까지 1년 소요	유사
절충 교역	• 절충교역법으로 시행	• 절충교역 시행 성숙	한국보다 강력한 절충교역 제도 시행
방산 생산능력	• 자국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정책 및 제도 구비	•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구비	유사

제2절 조직/운영

- 폴란드는 국방조달을 위한 단일조직(군비검증단)이 있다.
- EU 전자조달체계를 활용하여 조달하고, 국방관련 장비 물자류는 별도로 구매하고 있다.

<표 19> 폴란드와 한국 간의 조직/운영 측면 비교

구분	폴란드	한국	비교결과
국방통합 조달	• 국방부 군비검증단에서 통합 구매 담당 • 구매공고는 발주처 확인 가능	• 국방조달을 위해 방위사업청(무기체계, 중앙조달물자), 국군재정단 (전투지원체계, 일반장비 및 물자) 있음	유사
정보공개	• 공개된 연락처 확인 불가	• 방위사업청은 조직도 및 업무별 연락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국군재정단 조직도는 확인 가능하나 업무별 연락처는 대표전화를 통해 가능	폴란드는 담당자 정보 확인 불가
전자조달 체계	• EU 공공조달전자체계 활용 • 국방조달은 별도 체계 운영	• 국방전자조달을 위한 '국방전자조달 체계(d2b)' 운영	체계는 유사하나 전급성에서 폴란드는 폐쇄적임

구분	폴란드	한국	비교결과
국방통합 조달	- 국방부 군비검증단에서 통합 구매 담당 - 구매공고는 발주처 확인 가능	국방조달을 위해 방위사업청(무기체계, 중앙조달물자), 국군재정단 (전투 지원체계, 일반장비 및 물자) 있음	유사
입찰정보 확인	신문, 인터넷 사이트, 발주처 게시판 등에서 확인 가능	- 무기체계 입찰공고는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방전자조달에서 확인 가능 - 일반장비 및 물자류 입찰공고는 '국방전자조달체계(d2b)'에서 확인 가능	유사하나 폴란드는 다양한 곳에서 동시에 확인 가능 유사
낙찰정보 확인	팩스, 서신 등으로 직접 전달 및 청구 가능	'국방전자조달체계(d2b)'에서 전자입찰, 낙찰자 확인, 대금지불 청구 등 가능	폴란드는 인터넷 상에서 확인 불편

제3절 외국기업 개방성

- 폴란드는 외국인이 입찰에 참가하는데 특별한 제한조치가 없으나, 자국 영업권 획득 요건이 자국인 또는 장기 체류자에 한해 발급하고 있다.
- EU 내 국가 물품을 우선하여 조달한다.

<표 20> 폴란드와 한국 간의 외국기업 개방성 측면 비교

구분	멕시코	한국	비교결과
제한사항	- 외국인 입찰참가 제한사항 없음 - 자국 영업권 요건이 까다로움	- 외국인 입찰참가 제한사항 없음 - 사전에 '정부조달체계(d2b)'에 등록하여 코드 부여 받음	폴란드는 외국인 참여 요건이 제한적임
정부조달 협정	- 정부조달협정 미가입 - FTA 체결국에 대해 우대	- 정부조달협정 가입 - FTA 체결국에 대해 우대	유사
방산기술 협력	- 현지 생산공장 설립, 기술이전 업체 우대 - 절충교역을 통해 방산기술 능력 확보 추진 중	- 국내 연구개발 및 생산 우선 - 절충교역을 통해 핵심 방산기술 능력 확보 추진 중	폴란드는 외국업체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임 유사

제5장

시장진출 사례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성공 사례

제5장 시장진출 사례 분석

조하여 폴란드 국영방산업체인 HSW(Huta Stalowa Wola)에 납품하며, 나머지 96문은 2018년부터 폴란드에서 생산하기로 하였다.

제1절 개요

- 폴란드 국방조달시장은 방산수출 신흥시장으로 성공 및 실패 사례 조사가 매우 제한적이다.
- 최근 K-9 자주포 차체 수출사례²¹⁾을 통해 시장진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절 성공 사례 : 한국산 K-9 자주포 차체 수출

1. 사례 개요

- 폴란드는 군현대화계획을 추진하면서 장기간 연구개발한 자주포 ‘Krab’의 차체 내구도가 문제로 식별되었다.
- 차체를 해외 도입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산 K-9 자주포가 요구 성능에 가장 부합된 것으로 결정하고 구매하였다.

2. 진출 과정

- 폴란드는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구소련의 무기들을 자국 실정에 맞게 개량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위산업 기반을 유지한다.
- 냉전이 끝나면서 기존의 구소련제 대신 서방의 무기 규격을 적용하면서 전 방산분야의 소요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면서 방위사업은 서구화 기술을 갖추어야만 했다.
- 포병전력 중에서 기계화 부대의 자주포는 넓은 평원이 있는 폴란드로서는 핵심 전력으로 1999년부터 15년에 걸쳐 영국 BAE Systems의 AS-90 52구경장 155mm 포탑을 기본으로 한 신형‘Krab’자주포를 개발했다.
- 그러나 폴란드 군 자체평가에서 차체가 155mm 52구경장 포탑의 강한 반동을 견디지 못하고 차체에 강판에 금이 가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던 중 한국의 K-9 자주포 차체를 구매하여 자국산 포탑을 결합하는 형태로 ‘Krab’자주포 120대를 생산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12월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은 폴란드 정부와 3억 1000만 달러 규모의 자주포 차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차 24문은 한국에서 제

3. 성공 요인

- 설계 측면에서 K-9 자주포는 기존의 K-55 자주곡사포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차체 중량과 새로 도입된 유기압식 독립 현수장치가 발사의 충격을 모두 흡수하도록 설계되었음. 또한 신속한 장전을 위해 탄약고가 포탑 뒤쪽에 달려있어서 포탑 뒷부분이 대형화되어 있다.
- 해외 홍보 측면에서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스페인,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에서 현지 시험평가를 통해 해당국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시켰고, 폴란드에서도 내구도 주행시험(3천km), 사격안정성(직사 및 후방사격), 구성품 기능시험, 강우시험 등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시켰다.
- 이러한 해외 각기 다른 지형과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것은 개발단계에서부터 수출을 고려한 설계 및 개발을 하였기 때문이다.

4. 시장 진출 시사점

- 국내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개발비 문제로 군의 요구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내수용 개발에 우선하고 있어 해외 수출할 경우에는 해당국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개조가 필요해 가격상승의 요인이 된다.
- K-9 자주포의 경우 수출을 고려한 설계 및 개발로 한국군의 요구조건 뿐만 아니라 간단한 개조만으로도 해외 각국의 요구조건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었다.

21) 세계일보 인터넷 신문, “폴란드는 왜 K-9 자주포를 구입했을까”, 2015.6.26.일자 기사와 인터넷 나무위키 사전, “K-9 자주곡사포”, 2016. 10월말 기준 자료 등을 종합하여 작성함.

제6장

시장진출 전략

제1절. 국가 특성 분석

제2절. SWOT 분석

제3절. 시장진출 전략

제6장 시장진출 전략

제1절 국가 특성 분석

1. 정치·외교 전망

가. 국내 정세

- 폴란드는 2019년 10월 총선에서 법과정의당(Prawo i Sprawiedliwosc: PiS, Law and Justice)이 하원 460석 중 240석을 차지하여 재집권에 성공한 2015년 총선에 이어 과반수를 유지하였다.
- 법과정의당은 1989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하원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으로, 2015년 사상 처음 단독 정부를 구성하였음.
-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EU와의 관계에서 폴란드만의 자주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탈탄소화가 폴란드 에너지 산업에 치명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유로존 가입조건(마스트리히트 조약: GDP 대비 정부 재정적자 3% 달성) 충족 등 재정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유로화 도입에는 부정적이다.

나. 대외 정세

- 폴란드는 1999년 3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을 함으로써 국가 안전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받았으며, 2004년 5월 유럽 연합(EU)에 가입되어 서구 경제권으로 재편입되었다.
- NATO와 EU 가입은 폴란드에게 있어 군사적인 안전과 경제적 발전의 틀을 구축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는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NATO에서는 안보투자프로그램(NSIP)의 일환으로, 2014년 12월말 기준, 24억 9,800만 즈워티(약 6억 4,700만US\$) 규모의 129개 사업에 투자, 폴란드는 국방 관련 자금 확보 및 기술이전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 경제외교 강화의 일환으로 국가이미지 홍보를 강화 중으로 특히, 2012년 6월 ‘유로컵 2012’를 우크라이나와 성공적으로 공동 개최하여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 독일과는 2010년 폴란드 총선 이후(친 EU정책) 전 독일 외무장관인 베스터벨레의 대 폴란드 친선외교 정책 및 양국정상 우호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2. 경제 전망

- 폴란드의 실질경제성장률은 2016년도 3.1%에 2017년은 4.8%로 2018년 5.1%로 성장세가 증가하고 있다.
- GDP(명목)는 2016년도에는 1조 2,241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1조 3,651억 달러로, 2018년에는 1조 5,423억 달러로 계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 폴란드는 최근 5년간 세계 주요기관 전망치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으며 2019년 1분기에도 4.6%의 성장률을 보였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경제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임금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에 따라 2018년의 5.1%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 세계 3대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의 폴란드 평가는 A급으로 투자적격 등급이지만 장기적으로 경제 환경이나 경영여건에 따라 재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방산수출 통제

- 폴란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²²⁾에 방산물자 수출지역을 “가”, “나” 지역으로 분류한 구분에서 “가” 지역 국가에 포함되어 있어 전략물자 수출에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가” 지역 :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미국, 영국 등 29개국)
- “나” 지역 : “가”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및 지역

4. 한국과의 관계

- 우리나라의 대 폴란드 수출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도 수출액은 2017년 대비 39.1% 증가하는 등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2009년 ‘한국-폴란드 간 군수품과 용역에 대한 정부품질보증 상호수락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13년 10월 ‘한국-폴란드 간 국방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그리고 2014년 5월 ‘한국-폴란드 간 방산협력 약정’을 체결하였다.
- 제1차 방산·군수협력공동위 개최 / 폴란드
- 방산교역은 최근 K-9 자주포 차체를 수출한 사례가 있다.

22)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43호, 2016.3.11.), 별표 6.

5. 군사력 및 국방비 전망(2016~2020년)

- 폴란드 국방 조직은 국방장관예하에 방위력개선업무를 담당하는 획득차관(1차관)과 군사력을 운용하는 국방총참모장이 편성되어 있다.
- 병력은 총 110,000명이며, 육군 48,000명, 해군 7,000명, 공군 16,400명 등임
- 2019년 폴란드 국방부의 예산은 116억 9천만 달러 규모로 GDP의 약 1.98% 수준이다.
- 2023년 국방비는 144억 2천만 달러 수준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6. 주요 장비 획득계획

- 2016-2025년까지 폴란드 군 주요 장비 획득계획을 금액규모로 살펴보면 총 282.87억 달러 규모이며, 가장 많은 획득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병전투차량이 40.8억 달러이고, 그 다음은 다목적 전투기로 19억 달러, 자주포 18.67억 달러, 잠수함 14.53억 달러 등이다.
- 그 외에 수송기, 지상지원장비, 전차, 장갑차 등이 주요 획득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7. 주요 장비 노후도 현황

가. 육군

- 기동/장갑차량의 장비수명을 30년으로 정할 경우 향후 10년 이내인 2026년까지 도태예정인 장비는 BRM-1 장갑전투차량 1종이 예상된다.
- 화포장비의 장비수명을 40년으로 정할 경우 향후 10년 이내인 2026년까지 122mm 2S1(M-1974) 자주포 1종이 도태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전차 무기는 장비수명을 40년으로 정할 경우 향후 10년 이내인 2016년까지 9K11/9K114 Malyutka(AT-3'Sagger') 계열 3종과 기타 RPG-7V 로켓포 등이 도태될 것으로 예상된다.
- 폴란드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회전익 항공기의 장비수명을 30년으로 정할 경우 향후 10년 이내인 2026년까지 Mi-24D 등 공격헬기와 Mi-17 의무헬기 등 5종이 도태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해군

- 수상함의 장비수명을 40년으로 정할 경우 향후 10년 이내인 2026년까지 도태예정인 장비는 초계함 Oliver Hazard Perry급과 소해함 Goplo(Notec) (Project207P/207DM) 등 3종의 함정이 도태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해군이 운용하는 고정익 항공기의 수명을 30년으로 정할 경우 향후 10년 이내인 2026년까지 도태예정인 항공기는 수송기 M28B Bryza TD와 해상초계기 M128B1R Bryza 1R 2종이다.
- 회전익 항공기는 장비수명을 30년으로 정할 경우 향후 10년 이내인 2026년까지 구조용 Mi-14PL, 다목적용 W-3WA, Mi-14PL Strike 등이 도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공군

- 공군의 고정익 항공기의 장비수명을 30년으로 정할 경우 향후 10년 이내인 2026년까지 도태예정인 장비는 공격기 SU-22M4와 MIG-29가 있으며, 훈련용으로 MIG-29UB와 Su-22UM3K가 예상된다.
- 회전익 항공기의 장비수명을 30년으로 정할 경우 향후 10년 이내인 2026년까지 도태예정인 항공기는 다목적용 206L-3기와 UH-60L기 등 4종이 도태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방공무기로는 지대공 미사일 S-125 Neva SC(SA-3'Goa'),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9K32/9K32Strela-2/2M(SA-7a/b'Grail) 등 6종이 도태될 것으로 예상된다.

8. 방산능력

- 폴란드의 방위산업체는 대략 90여 개이며, 고용 인력은 약 3만여 명이다. 폴란드 방산업체는 국영, 이전 국가자산을 민영화한 업체,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그룹의 자회사, 그리고 지역 업체가 혼합된 상태이나 주요 방산 업체는 오랜 민영화진행에도 불구하고 국영 형태로 남아있다.
- 또한 우주항공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저비용 생산과 기술 서비스로 지역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 (항공분야) 우주항공 분야는 폴란드 방위산업기반 중 가장 발전된 분야이다. 기업을 초월한 네트워크는 부품의 제작으로부터 완전한 상용항공기의 생산까지 공급체인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헬기 분야는 이탈리아의 Leonardo-Finmeccanica (구 Augusta-Westland)사와 미국의 Sikorsky사가 현지 합작공장을 설립하여 헬기

를 제작하고 있다.

- (기동/장갑차량 분야) 폴란드는 지상 및 장갑무기체계분야에서 구 소련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케도화된 장갑병력수송차량, 전투차량, 차륜형 전투차량, 경장갑차량, 전술차량, 자주포, 로켓발사기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한국 K-9 자주포 차체를 다양한 지상장비 플랫폼에 장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 또한 전체체계에 대한 설계능력을 갖추고 있고 변속기와 디젤엔진까지 생산이 가능하며 정비, 보수, 창정비 능력도 탁월함
- (함정건조 분야) 폴란드는 국내 조선소에서 해군 및 상선의 설계와 제작, 수선, 개조, 정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주요 조선소는 국영기업인 Stocznia Marynarki Wojennej, Nauta,이 있으며, 사기업인 Damen Shipyard, 그리고 2002년 민영화된 Remontowa Gdansk Ship Repair Yard가 있다.
- 함정 건조 외에도 수중 탐색체계와 기뢰 대항체계 그리고 어뢰관련 기술 등 일부 해상체계 생산능력을 구비하고 있으나, 해상무기체계의 광범위한 국가 소요를 충족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며 진보된 함정설계 기술, 해상 구조물, 잠수함 설계 및 제작 분야는 해외 도입이 필요함

9. 국제 방산협력 현황

- 폴란드는 전통적으로 핀란드산 장비를 많이 획득하고 있으며, 최근 현대화 계획에 따라 독일산 장비를 획득한 바 있다.
- 독일로부터 기동·장갑차량류를 획득한 것으로 추정²³⁾
- 그 외에 미국, 이태리, 스페인, 스웨덴 등으로부터 장비를 도입하고 있으며, EU에 편입되면서 러시아산 장비 획득은 거의 없다.

10. 한국 국방조달체계와 비교

가. 조달제도 측면

- 한국과 유사하게 계약을 위한 입찰 기준과 낙찰 기준 등에 대하여 제도화되어 있다.

나. 조직/운영적인 측면

- 폴란드는 국방조달을 위한 단일조직(군비검증단)이 있다.

23) SIPRI, DATA BASES, IMPOTER/EXPOTER TIV TABLES, POLAND 자료(2016.10.30.일 기준)

- EU 전자조달체계를 활용하여 조달하고, 국방관련 장비 물자류는 별도로 구매하고 있다.

다. 외국인 개방성 측면

- 폴란드는 외국인이 입찰에 참가하는데 특별한 제한조치가 없으나, 자국 영업권 획득 요건이 자국민 또는 장기 체류자에 한해 발급하고 있다.
- EU 내 국가 물품을 우선하여 조달한다.

제2절 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 분석

<표 21> SWOT 분석결과

<강점(Strengths)>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으로 양국간 경제, 사회, 국방분야 교류 활성화 가능 • 방산관련 협력 약정 및 품질보증 약정 체결국임 • K-9 자주포(차체) 수출 경험을 통해 타 분야로 확대 가능 • 한국의 국가 브랜드 및 방산기술 인지도 상승	<기회(Opportunities)> • 지속적인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국방비 투자도 증가 추세임 • 군 '기술현대화 계획'과 '2013~2022년 군사력증강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2016년 3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현대화계획을 지속성 있게 시행 중 • 공공조달의 투명성이 비교적 양호하여 공개경쟁입찰 참여 기회 확대 가능성 • 2017. 9월 폴란드방산전시회(MSPO)에 한국이 Leading 국가로 참가 예정
<약점(Weaknesses)> • 외국기업의 영업권 취득 시 내국민 혹은 EU국가 대비 불리 • EU 회원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미국, 이스라엘 등 방산 선진국의 첨단무기 선호 • 미국, EU 등 주변국 대비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비용 상승 가능성 높음 • 국방조달시장 참여를 위한 정보 빈약 (언어 장벽 및 정보수집 체계 등)	<위협(Threats)> • EU 및 NATO에 편입된 이후 EU 및 미국에 대한 연대감이 높아 실질적인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 • 절충교역법 개정으로 현지 기업과 협업을 통해 현지생산 우선 적용 등 높은 수준의 절충교역 요구 • 지상·해상·항공 분야 방산능력을 갖추고 있어 관련된 한국 방산품 직수출 제한됨 • 선진 다국적 기업들의 동유럽 진출을 위한 생산 거점 선점으로 신규 진입 불리

제3절 시장진출전략

시장진출전략은 SWOT 분석을 통해 나타난 강점과 기회를 강화하고 약점과 위협을 극복하는 할 수 있도록 중·단기와 장기 및 정부지원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단기·중기 전략

가. 현지 국방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철저

- 폴란드 국방조달시장은 한국 방산품의 신흥시장이다. 폴란드 군이 소요제기부터 획득 및 운영유지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조직, 제도,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와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폴란드의 기반 시설과 지형 및 자연 조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불필요한 개조에 따른 비용상승 요인을 막을 수 있다.
- 따라서 폴란드 국방조달 시장에 진출 시 사전 준비를 잘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 현지 방산 관련 전시회에 참석하여 현지 협력자인 에이전트를 발굴하고 능력을 검증하여 좋은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도록 해야 함
 - 방위사업청은 폴란드 국방조달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입찰 빈도가 높은 품목을 선별하여 수출가능한 품목을 선정하고, 그 생산업체들을 시장개척단에 포함시켜 현지 홍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방산업체는 방위사업청의 수출입지원시스템(d4b)에서 제공하는 입찰정보 시스템과 KOTRA 글로벌윈도우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kotranews/index.do>)에서 제공하는 국가정보를 통해 입찰공고 내용과 상거래 관습 등을 잘 확인한 후 수출에 임하고,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의 시장개척단에 적극 참가하는 것이 필요함

나. 방산전시회를 활용하여 한국방산품 홍보 및 친숙화 기회 마련

- 폴란드는 매년 국제 방위산업박람회(MSPO: Międzynarodowy Salon Przemysłu Obronnego)를 9월에 개최한다.
- MSPO는 동구권 유럽에서 개최되는 방산전시회로서 독일, 프랑스, 영국, 터키, 이스라엘 등 30여 개국이 참가하는 국제적 행사이다.
- 2020년에는 9월 8일부터 11일까지 키엘체에서 개최하는데 한국은 Leading 국가로 참가할 예정이다.

- 폴란드는 최근 서구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한 생산거점 기지로 활용되는 중요한 위치에 있어 MSPO는 동구권 및 서유럽 방산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2020년 MSPO에서 동·서 유럽의 국방조달시장 진출할 수 있도록 우수한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일반장비 및 물자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폴란드 군 현대화 계획에 부합하는 방산 협력 방안 마련

- 폴란드 국방부는 2012년 12월 ‘기술 현대화 계획’과 ‘2013~2022년 폴란드 군사력 증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6년 10월에 이를 수정 보완하여 새로운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 획득계획 품목은 다음과 같다.(3장 폴란드 입찰제도 참조)
 - (대공작전) : 중거리 방공체계(WILA, 2019~2022년), 단거리 방공체계(NAREW, 2021~2022년), 휴대형 대공미사일(PIORUN, 2017~2022년) 등
 - (기갑) : Leopard Tank 2A4 현대화(2018~2021), 경전차(GEPARD, 2022년부터), 보병전투차량(BORSUK, 2021년부터) 등
 - (개인전투장구) : 개인전투 장구류
 - (순찰, 정찰 전력) : 정찰차량(ZMIJA, 2020~2022년), 경무장 정찰수송차량(KLESZCZ, 2021~2022년), 원거리 체계에서 수집된 정보자산 수집, 보관, 처리 민 분배 체계(PAJAK, 2018~2022년) 등
 - (지역방어부대) 통신장비(2017~2022년), 야시경(2017~2019년) 등
 - (해양전력) : 기뢰제거함(KORMORAN II 3척, 2016~2021년), 연안경비함(MIECZIK, 2021~2026년), 잠수함(ORKA, 2024~2026년) 등
 - (항공전력) : 고등훈련기(2016~2022년), 다목적 헬기(2018~2022년) 등
- 따라서 폴란드 군이 필요로 하는 제품 또는 기술 분야를 파악하여 완제품이나 부품품, 기술이전 또는 공동개발 등 통한 다양한 수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K-9 자주포 수출경험을 활용한 시장영역 확대

- 폴란드에 K-9 자주포 차체를 수출하면서 한국산 방산품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폴란드는 K-9 자주포 기술을 활용해 자체 자주포 생산 뿐 아니라 다른 무기체계 개발에도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따라서 폴란드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무기체계에 부합하는 기술을 찾아 제

공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마. 가격 경쟁력을 위해 수출 기술료 감면 추진

- 무기체계 수출 시 가격 경쟁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방산물자는 원가보상 적용에 따라 수출 시 기술료를 환수하게 되어 있어서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따라서 향후 폴란드에 무기체계 수출 시 기술료 감면제도를 대상 및 규모를 현행보다는 대폭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장기 전략

가. 높은 절충교역 요구조건을 해소하기 위해 폴란드 방산그룹(PGZ) 및 중앙설계·기술국(WCBKT)과 협력 방안 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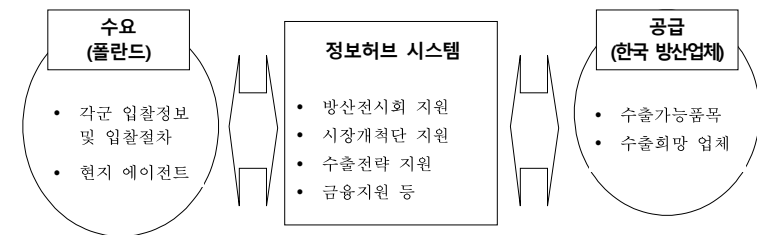
- 폴란드는 군현대화계획을 추진하면서 자국의 방산능력을 확충하려고 높은 절충교역을 요구하고 있다.
- 폴란드 정부는 군사장비 개발 및 생산을 위해 Polish Armaments Group(Polska Grupa Zbrojeniowa (PGZ SA))과 Central Military Bureau of Design and Technology(Wojkowe Centralne Biuro Konstrukcyjno-Technologiczne SA(WCBKT SA))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 PGZ SA는 폴란드 정부 소유 방산업체의 지주회사(holding company)임
- WCBKT SA는 1980년 폴란드 국방부가 정부 소유 방산업체들을 통합하여 항공기 지원장비 및 시뮬레이터, 전차와 장갑차를 위한 훈련장비 등을 설계 및 생산하는 업체임
- 따라서 폴란드 정부의 높은 절충교역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방산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PGZ SA 및 WCBKT SA와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므로, 이들과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나. 정부지원 협력 방안 마련

(1)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정보지원 허브체계 구축

-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신흥시장인 폴란드의 국방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장 가능성 판단을 위하여 국가의 정치 및 대외관계, 국방비와 전력증강계획 분석, 주변국과의 정치적·군사적 긴장도 분석 등이 필요하다.

- 폴란드 정부가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절충교역 수행에 필요한 민간 산업 및 경제 역량 분석과 경제 하부기반 분석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또한 폴란드 국방부 및 군에서 방산 제품 획득을 담당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 아울러 입찰에서 경쟁자 분석을 위한 수출대상 품목의 글로벌 경쟁업체에 대한 평가 등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사전 방산시장 분석기능이 필요하다.
- 따라서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등 방산수출부처는 폴란드의 국방조달에 대한 수요와 한국 방산품에 관한 공급을 잘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림 7> 방산수출 정보지원체계 개념도

- 신속한 입찰정보 제공 체계 보강
 - 현재 폴란드 국방조달입찰공고 관련 정보는 국방기술품질원이 수집하여 방위사업청 인터넷 수출입지원시스템(www.d4b.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공고품목수는 지난 1년간 49품목에 불과하며, 이중 일반방비 및 물자류는 23품목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리부속류였음
 - 따라서 무기체계에 대한 획득계획 및 공고사항과 발주처 조달공고 사이트를 수시로 확인해서 입찰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 현지 에이전트 발굴
 - 폴란드의 입찰정보는 유럽연합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은 EU의 공공전자조달을 통하여 공고되지만 그 이상의 장비나 무기체계들은 발주처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여야 함
 - 그리고 폴란드 내에서 군사용 장비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권을 획득해야 하는데, 영업권은 EU 국민, 폴란드 영주권자 또는 장기체류 허가자 등에 한해서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지 조력자가 필요함. 현지 조력자로는 국방무관이나 KOTRA 현지 무역관이 적합하지만, 이들은 방산수출에만 주력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협력관 파견이 적절할 것임

- 하지만 수출협력관이 파견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간의 행정협의를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현지 에이전트를 발굴하는 것이 요구됨
- 따라서 지역 내 방산전시회 참석과 시장개척단 활동 등을 통해 신뢰성 있는 에이전트를 발굴하고, 이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시장개척단 활동
 - 최근 들어 한국의 국가브랜드 및 방산기술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으므로, 우수한 경쟁력 있는 방산품 소개를 위한 시장개척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함
 -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현지 시장을 개척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2) 수출을 고려한 무기체계 연구개발

- 폴란드에 K-9 수출은 연구개발 착수 시부터 수출을 고려한 연구개발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은 방산제품 수출 확대와 기개발 제품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출용 개조개발 R&D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정부 지원 및 사업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국에 비해 기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장갑차와 같은 무기체계에 에어컨 등 실내 기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며, 도로의 지질도 한국에 비해 연약한 편이고 도로 폭도 좁은 편이므로,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한 개조개발이 필수적임
- 따라서 향후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수출용 개조개발 R&D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방산수출금융지원을 위한 이차보전제도(선적 전 금융지원) 확대

- 방위사업청은 방산품 수출을 위해 수출업체에 대한 방산수출금융제도로써 ‘이차보전’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대상이 생산자금으로만 국한되어 있다.
 - ‘이차보전’ 제도는 방산 수출 시 방산업체가 은행에 부담하는 금리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이 소정 금리(중소기업 0.5%, 대기업 1%) 수준과의 이차차액만큼을 부담하는 제도임
- 최근 방산수출이 확대됨에 따라서 수출업체에 대한 방산수출금융 지원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행 이차보전제도의 지원 범위 확대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따라서 이차보전의 대상을 확대하여 생산자금 뿐만 아니라 방산 수출업체가 요구하는 선적 후 금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연불수출 금융지원제도(선적 후 금융지원)의 확대

- 최근 동유럽,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방산 개도국들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입찰에 참가하는 국외기업으로부터 금융지원계획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 현재 방산품 수출금융은 대출, 보증, 보험, 이차보전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방산분야는 일반 민수상품과 달리 금액규모가 크고 장기간 소요되며 구매자가 해당국 정부이기 때문에 일반 상업은행의 대출이 어려우므로 정부의 정책적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 중장기 수출금융분야에서 정부의 정책금융지원과 신용보강을 위해 지원하는 방식을 수출신용기관(ECA : Export Credit Agency) 금융지원이라고 한다.
 - OECD 수출신용협약 상에 ECA 수출금융 지원방식은 ① 간접금융지원방식은 Pure Cover, ② 직접금융지원방식은 Direct Credit으로 구분하고 있음
 - 대부분의 선진국(특히 유럽)은 방산수출에 대해 상업금융기관이 Loan을 제공하고 ECA가 위험을 보증(Cover)하는 간접금융지원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금융계약관계는 수출입은행 또는 무역보험공사가 공급자에게 제작자금을 대출하거나, 구매국에게 구매자금을 대출(구매자 신용)하는 방식이다.
- 따라서 폴란드 국방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업규모에 따라 수출신용기관(ECA)의 ‘연불수출금융’ 지원을 통하여 경쟁국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대출심사의 핵심요인은 크게 ① 구매국의 대금지급능력(구매국이 정부), ② 수출기업의 생산능력(수출경험이 있는 방산품 유리), ③ 거래의 안정성(사업의 안정성과 구매국 정부의 안정성이 중요) 등임
 - 외국계 은행과 한국 수출입은행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음. 금리적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나, 외국계은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금융기관에 보증을 제공해야 하고 본점의 승인절차가 까다로운 점이 있는 반면에 자금유동성이 좋아서 수출입은행보다 금리가 낮은 장점이 있음
 - 법규범 측면에서는 일반상품의 수출거래는 국제규범(WTO 보조금 협정, OECD 수출신용협약) 준수가 원칙이나 방산수출은 ‘안보 예외(Security Exception)’에 따라 국제규범에서 예외가 허용되며, 방산수출국 대부분이 선진국이어서 이 분야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는 상태임

(5) 중소기업 방산품 수출확대를 위한 패키지 판매방안 개발

- 중소기업의 방산품이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국의 장비 사양부터 입찰 정보 획득 및 홍보 등 많은 노력과 비용이 요구된다.
- 따라서 대형 무기체계 수출 시에 중소기업 방산품을 패키지 상품으로 묶어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예를 들어 자주포와 자동포구청소기, 소총 또는 중기관총에 조준경 등을 묶음으로 제안하는 방안임

(6) 군사교환교육 프로그램 추진

-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국방대학교, 각 군 대학 등의 국방관련 각종 교육기관에는 해외의 많은 우수한 장교들이 파견되어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을 이수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 이들 외국의 우수한 장교들이 국내 체류 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깊은 유대 관계를 맺는 것이 그들이 귀국한 후 한국과 한국산 방산품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으므로 향후 방산수출 및 협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군사교환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폴란드 군간부들이 한국에서 군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제7장

수출유망품목

제1절. 후보품목군 선정: 1차 스크리닝

제2절. 후보품목군 선정: 2차 스크리닝

제3절. 수출유망품목 선정

제4절. 수출유망품목별 시장진출방안

제7장 수출유망품목

제1절 후보품목군 선정 : 1차 스크리닝

1. 선정시 고려 사항

- 폴란드에 대한 수출유망후보품목군은 앞장에서 살펴본 국가 개황, 국방 개황, 군사력, 국방비, 방위산업 현황, 주요 획득사업 현황 및 전망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 국내·외 마찰 및 분쟁 등 군사적 상황을 고려한 결과,
 - 폴란드는 바르샤바조약기구로부터 NATO의 회원국이 되고 EU에 편입됨
 - NATO국들과 상호운용성을 달성하고 구소련시절의 무기들로부터 탈피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결과,
 - 지난 10년간 경제 활황을 기반으로 GDP의 2%를 국방비로 투자하였고, 향후 2020년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 따라서 높은 수준의 군사력 건설에 투자가 전망됨
- 이에 따라 폴란드의 무기체계류의 경우 지상·해상·항공 분야의 대대적인 현대화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장비 및 물자류의 조달 소요는 현 수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출유망후보품목군은 다음과 같음

전차, 보병전투차량, 자주포, 지상지원장비, 감시정찰 장비, 방공 및 미사일 방어체계, 전장관리체계, 초계함, 잠수함, 다목적 전투기, 전자전장비 등

-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의 노후교체 및 획득계획 측면을 고려한 결과,
 - 육군의 경우 노후 APC(Armored Personnel Carrier), 다목적 경전술차량, 155mm 자주포 등의 교체가 예상됨
 - 해군의 경우 대부분 신형 함정으로 교체가 진행 중이며, 소해 및 재난 구조함의 추가 획득이 예상됨
 - 공군의 경우 대부분 신형 항공기로 교체가 진행 중이며, 차후 일부 노후 수송헬기, 대공 미사일 및 대공포의 교체가 예상됨
 - 2016-2025년간의 국방예산 투자계획을 분석해 보면, 보병전투차량, 다목적 전

투기, 자주포, 잠수함, 수송기, 지상지원장비, 전자전장비, 초계함 등이 주요 획득 대상임

- 이에 따라 노후교체 및 획득계획에 따른 수출유망후보품목군은 다음과 같음

APC, 다목적 경전술차량, 자주포, 지상지원장비, 대공 미사일 및 대공포, 소해 및 재난 구조함, 초계함, 잠수함, 다목적 전투기, 수송헬기, 전자전장비 등

- 2015. 5월 -2016. 9월까지 멕시코 입찰공고 품목류를 검토한 결과,
 - 전투 시뮬레이터, 폭발물 탐지기, 야간투시경, 피복류, 방탄복, 방탄헬멧, 낙하산, 방독면 등이 주요 구매 품목이었음

2. 제한사항

- 폴란드의 자체 방산능력을 고려할 때,
 - 지상분야는 케도화된 장갑병력수송차량, 차륜형전투차량, 경장갑차량, 전술차량, 자주포, 로켓발사기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
 - 해상분야는 국내 조선소에서 함정의 설계와 제작, 수선, 개조, 정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수중 탐색체계와 기뢰 대항체계 그리고 어뢰관련 기술 등 일부 해상체계 생산능력을 구비하고 있음
 - 항공분야는 군용항공기용 주요 부품과 헬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F-16 구매 절충교역의 산물로 우주항공 클러스터를 구축함

3. 수출유망후보품목군

- 이상과 같은 고려사항을 종합한 최종 수출유망후보품목군은 다음과 같다.

- 지상장비류 : 자주포, 보병전투차량, 다목적 경전술차량, 방공 및 미사일 방어체계, 지상지원장비 등
- 해상장비류 : 소해 및 재난 구조함, 초계함, 잠수함 등
- 항공장비류 : 수송헬기 등
- 지휘통신전자장비류 : 전자전장비, 전장관리체계, 전투 시뮬레이터 등
- 감시정찰장비류 : 감시정찰 장비, 야간투시경 등
- 기타 일반장비류 : 폭발물 탐지기 등
- 물자류 : 피복류, 방탄복, 방탄헬멧, 낙하산, 방독면 등

제2절 후보품목군 선정 : 2차 스크리닝

- 1차 스크리닝 된 수출유망검토품목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문가집단의 델파이 기법을 통해 폴란드 수출가능품목으로 무기체계 13품목, 일반장비 6품목, 물자 4품목 등 23품목이 선정되었다.
- 전문가 집단 : 방사청 부장 및 팀장 출신 자문위원, 방산업체 출신 자문위원

<표 22> 폴란드 수출유망후보품목 현황

구분	품목류 수	품목명	품목명
무기체계	13	휴대용 지대공 유도탄(신궁)	지상전술 전자전장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천궁)	전장관리체계
		대잠용 미사일(홍상어)	초계함
		K-21 장갑차	정찰 및 재난 구조함
		복합형 대공화기	해안감시레이다
		자주포	지상감시레이다
		항공기용 전자전장비	-
일반장비	6	소형 열상조준경	UH-60 모의 비행 훈련장치
		다기능 관측경	가변형 전술훈련 시뮬레이터(RTTS)
		도트 사이트	UGV(다목적소형로봇)
물자	4	방독면	방탄헬멧
		낙하산	방탄조끼
합계	23		

제3절 수출유망품목 선정

1. 평가 방법

- 시장진출용이성은 폴란드 현지 방산수출담당자가 평가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 시장매력도는 방위사업청 수출지역 담당자, 방산업체 수출담당자, 자문위원 등 3명이 평가한 자료 활용하였다.

2. 수출유망품목 선정결과

- 폴란드 수출유망품목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 무기체계는 수출유망후보 13품목 중에서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등 10품목이 선정되었고, 현지에서 KT-1 및 T-50 항공기를 추천하여 총 12품목을 선정하였음

- 일반장비는 수출유망후보 6품목이어서 소형 열상조준경 등 6품목 모두를 선정하였음
- 물자는 수출유망후보 4품목이어서 방탄헬멧 등 4품목 모두를 선정하였음

<표 23> 폴란드 수출유망품목 선정 결과

구분	품목수 ²⁴⁾	설문지 번호	품목명	용이성	매력도					합계	순위
				A	A	B	C	D			
무기체계	12/15	3	중거리지대공미사일(천궁)	3	4	3	5	3	45	1	
		2	휴대용지대공유도탄(신궁)	3	4	3	4	3	42	2	
		8	K-9 자주포	2	5	4	5	2	32	3	
		4	대잠용 미사일(홍상어)	2	4	4	5	2	30	4	
		6	복합형 대공화기	2	4	4	5	2	30	5	
		5	K-21 장갑차	2	4	3	5	2	28	6	
		16	지상감시레이다	2	2	3	4	2	22	7	
		9	항공기용 전자전장비	2	2	3	3	2	20	8	
		10	지상전술 전자전장비	2	2	3	3	2	20	9	
		11	전장관리체계	2	2	3	3	2	20	10	
		추가	KT-1 항공기							11	
		추가	T-50 항공기							12	
		13	정찰 및 재난 구조함	1	4	4	4	1	13		
		12	초계함	1	4	3	4	1	12		
		15	해안감시레이다(GPS-98K)	1	2	2	4	1	9		
일반장비	6/6	1	소형 열상조준경	3	2	4	4	3	39	1	
		7	UGV(다목적소형로봇)	2	4	4	3	2	26	2	
		14	다기능 관측경	2	2	5	4	2	26	3	
		18	헬기용 시뮬레이터	2	2	4	4	2	24	4	
		17	도트 사이트	1	5	4	4	1	14	5	
		19	가변형 전술훈련 시뮬레이터(RTTS)	1	2	4	4	1	11	6	
물자	4/4	22	방탄헬멧	1	2	5	5	1	13	1	
		23	방탄조끼	1	2	5	5	1	13	2	
		21	낙하산	1	2	4	5	1	12	3	
		20	방독면	1	2	2	5	1	10	4	

24) 선정품목수/평가품목수

제4절 수출유망품목별 시장진출방안

1. 무기체계

<표 24> 폴란드 수출유망품목별 시장진출방안(무기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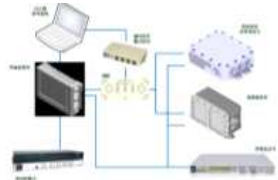
순번	품목 구분	품목명	품목형상	시장진출방안
1	무기 체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		- 폴란드 수출용 모델로 개조 또는 기술협력으로 시장 진출 - PGZ SA 및 WCBKT SA와 협력체계를 구축 - 유도무기분야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공동개발하는 방안 모색
2	무기 체계	휴대용 지대공 유도탄(신궁)		- 완제품 수출, 기술협력으로 시장 진출 - 방산전시회 등을 통해 장비 홍보
3	무기 체계	자주포		- K-9 차체 수출 경험을 토대로 자주포 분야로 시장진출 확대 - 탄약, 관측 및 사격 기자재 패키지 수출 방안 모색
4	무기 체계	대잠용 미사일 (홍상어)		- 폴란드 수출용 모델로 개조 또는 기술협력으로 시장 진출 - PGZ SA 및 WCBKT SA와 협력체계를 구축 - 유도무기분야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공동개발하는 방안 모색 - 폴란드 보유 함정과 체계통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 획득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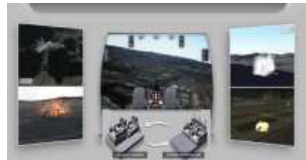
순번	품목 구분	품목명	품목형상	시장진출방안
5	무기 체계	복합형 대공화기		- 완제품 수출, 또는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유럽 전장환경에 적합한 모델로 공동연구 개발 추진 - PGZ SA 및 WCBKT SA와 협력체계를 구축
6	무기 체계	K-21 장갑차		- 완제품 수출 또는 현지 기술협력 생산 - PGZ SA 및 WCBKT SA와 협력체계를 구축 - 방산전시회/시장개척단 활동을 통해 장비 홍보 방법 모색
7	무기 체계	지상감시레이 더		- 완제품 수출 - 방산전시회/시장개척단 활동을 통해 장비 홍보 방법 모색
8	무기 체계	항공기용 전자전장비		- 완제품 수출 - 방산전시회/시장개척단 활동을 통해 장비 홍보 방법 모색
9	무기 체계	KT-1 항공기		- 완제품 수출 - 폴란드 항공우주분야 육성 정책에 부합되는 정부 간 협력 방안 모색

순번	품목 구분	품목명	품목형상	시장진출방안
10	무기 체계	T-50 항공기		- 완제품 수출, 현지 요구에 따라 현지 조립생산 방안 추진 - 폴란드 항공우주분야 육성 정책에 부합되는 정부 간 협력 방산 모색
11	무기 체계	지상전술 전자전장비		폴란드 요구사항을 고려한 모델로 수출 추진

2. 일반장비

<표 25> 폴란드 수출유망품목별 시장진출방안(일반장비)

순번	품목 구분	품목명	품목형상	시장진출방안
12	일반 장비	전장관리체계		- 완제품 수출하되 현지에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수출형 모델 제작 - 사전에 폴란드 군의 요구사항 파악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필요
13	일반 장비	소형 열상조준경		- 완제품 직수출 추진 - 방산전시회/시장개척단 활동을 통해 장비 홍보 방법 모색

순번	품목 구분	품목명	품목형상	시장진출방안
14	일반 장비	UGV (감시정찰용/지 뢰제거용)		- 완제품 수출, 또는 기술 수출 - 방산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활동을 통해 장비 홍보 추진
15	일반 장비	다기능 관측경		- 완제품 직수출 추진 - 방산전시회/시장개척단 활동을 통해 장비 홍보 방법 모색
16	일반 장비	헬기용 시뮬레이터(FFS)		- 폴란드 보유 기종에 맞도록 프로그램 제작하여 시장 진출 - 방산전시회 등을 통해 장비 소개, 시연 및 체험 기회 제공 등 방법 모색
17	일반 장비	도트 사이트		- 완제품 직수출 추진 - 방산전시회/시장개척단 활동을 통해 장비 홍보 방법 모색
18	일반 장비	가변형 전술훈련 시뮬레이터 (RTTS)		- 폴란드 보유 기종에 맞도록 프로그램 제작하여 시장 진출 - 방산전시회 등을 통해 장비 소개, 시연 및 체험 기회 제공 등 방법 모색

3. 물자

<표 26> 폴란드 수출유망품목별 시장진출방안(물자)

순번	품목 구분	품목명	품목형상	시장진출방안
19	물자	방탄헬멧		• 완제품 직수출 추진, 현지 공동 생산 추진 • 방산전시회/시장개척단 활동을 통해 장비 홍보 방법 모색 • 수시로 입찰 정보 확인하여 입찰 참여
20	물자	방탄조끼		• 완제품 직수출 추진, 또는 방산소재를 현지 업체에 제공하는 방안 추진 • 방산전시회/시장개척단 활동을 통해 장비 홍보 방법 모색 • 수시로 입찰 정보 확인하여 입찰 참여
21	물자	낙하산		• 완제품 직수출 추진 • 방산전시회/시장개척단 활동을 통해 장비 홍보 방법 모색 • 수시로 입찰 정보 확인하여 입찰 참여
22	물자	방독면		• 완제품 직수출 추진, 현지 공동 생산 추진 • 방산전시회/시장개척단 활동을 통해 장비 홍보 방법 모색 • 수시로 입찰 정보 확인하여 입찰 참여

이면은 공백임

제8장 한국 공공기관 및 기업 현황

제1절 한국 공관 및 기관

제8장 한국 공공기관 및 기업 현황

<표 27> 폴란드 주재 공관 및 공공기관 현황

기관명	주소	전화	팩스
대사관	Ul.Szwolczerow 6, 00-464 Warsaw	(22)559-2900	(22)559-2905
KOTRA 바르샤바무역관	Ul.Emilii Plater 53, 00-113 Warsaw	(22)520-6230	(22)520-6231

제2절 한국 기업 현황

<표 28> 폴란드 주재 주요 한국기업 현황

회사명	취급분야	진출형태
D&J테크놀로지	건설, 공사업	판매법인
DK폴란드	전자,전기,정밀기기	생산법인
DSE로지스틱스	항공/해상수출입 물류	서비스법인
JK 폴란드	플라스틱	생산법인
LG 디스플레이	LCD 모듈	생산법인
LG상사 바르샤바지사	화공,전자부품,유통	지점
LG이노텍 폴란드	LCD TV용 파워모듈	생산법인
LG전자 므와브법인	LCD/PDP TV 등	생산법인
LG전자 브로츠와프 법인	LCD TV, 가전제품	생산법인
LG전자 판매법인	TV, 모니터, 가전제품	판매법인
LG화학 폴란드	LCD용 편광판	생산법인
LS 애플론	사출 형성기	서비스법인
S&T 모티브	자동차 부품제조	생산법인
SKC	폴리우레탄	생산법인
가나다 유한회사	TV액세서리 등	생산법인
가실	LED 전구, CCTV	판매법인

회사명	취급분야	진출형태
그레이스 인터내셔널	섬유, 잡화, 의류	판매법인
기아자동차	자동차판매	판매법인
네오텍(주)	PCB조립, SMT	생산법인
니프코 코리아	자동차 내장 부품	생산법인
대동시스템	컨트롤 케이블	생산법인
대우 IS	자동차 오디오	생산법인
대우인터내셔널(주)	철강,금속,화학,기계	지점
대우일렉트로닉스	가전제품 수입 및 판매	생산법인
돈텍스 폴스카	직물 원단	판매법인
동서디스플레이	LCD용 케이스	생산법인
동양전자	TV케이스, PCB 부품	생산법인
동진전자	생활가전 부품	생산법인
두울산업(주)	자동차 시트	생산법인
디어포스	연마지 및 포	생산법인
디엔디 스프링	자동차용 서스펜션	생산법인
디케이엠에프지	작업용 장갑	생산법인
럭키유니온식품	해산물 냉동식품	판매법인
로케트	건전지	판매법인
링네트	LCD부품	
만도	제동,조향,현가부품	생산법인
맥스칼	IT솔루션,컨설팅	판매법인
미래로	플라스틱	판매법인
버드에너지	설계 및 인허가,건축	서비스법인
범한 판토스	물류서비스	서비스법인
사무데라	전기전자 정밀기기	생산법인
삼성전자판매법인	가전,정보통신제품	판매법인
삼일테크	모터드라이브,기어등	판매법인
삼화	전자부품	판매법인
(주)성광	정보 통신업	지점
성안(주)	섬유원단	사무소
세라젬	온열치료기	판매법인
스타리온	냉장고부품,TV부품	서비스법인
대동	자동차용 Lock set	생산법인
쌍고방세큐리트	자동차유리 제조	생산법인
쌍금무와바 유한회사	TV 스탠드, 사출	생산법인

회사명	취급분야	진출형태
아름텍(주)	섬유원단	사무소
아큐버	정보 통신업	서비스법인
알파비전	LCD 필름가공	생산법인
엠비폴	인쇄관련 서비스	서비스법인
에이스리코	플라스틱 및 제조	생산법인
엑츠29	방진원단,면라텍스장갑	판매법인
엠에이치글로벌	물류(항공, 해상등)	지점
운화실업	자동차부품	생산법인
유로테크 홀딩스	오락,숙박,음식,여행업	서비스법인
유신정밀	자동차부품(브레이크)	생산법인
인프린트	인쇄소모품 수입유통	판매법인
제니스모나미	생활용품, 잡화	생산법인
제일기획	컨설팅, 시장조사	지점
(주)지엔에스기술	정보 통신업	지점
칸	무역,서비스(직물,전자)	판매법인
케이티 폴란드 지사	정보 통신업	지점
키네틱	신발	판매법인
토센	LCD TV, STB	생산법인
트라이언	사무용프린터 임대	판매법인
판코	LED 패널	판매법인
펠스트링	TV 부품	생산법인
포스코 건설	플랜트	지사
토포론	스피커,PDP,LCD박형	판매법인
하나	LCD,자동차부품	생산법인
한국타이어	타이어 판매	지점
한양	플라스틱사출	생산법인
한진해운	국제해상운송	판매법인
현대자동차 폴란드법인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판매법인
화인알텍	금속 프레스 부품	생산법인
휴맥스	디지털 셋톱박스	생산법인
희성전자	BLU,램프,LED모듈	생산법인
히트전자	SMD조립 임가공	생산법인

제9장

자주 묻는 질문

이면은 공백임

제9장 자주 묻는 질문 (FAQ)

1. 폴란드와의 무역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2015년 기준 대 폴란드 수출액은 28억 달러이고 수입액은 7억 달러입니다. 주요 수출품은 평판디스플레이, 칼라TV, 자동차부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원동기, 선박용 부품, 자동차부품 등이 있습니다.

2. 우리나라와 체결된 군사 혹은 방산 협정이 있습니까?

- 2014년 5월에 ‘방산협력 약정’을 체결하였고, 제1차 방산군수협력공동위원회를 폴란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 2009년 12월에는 ‘군수품과 용역에 대한 정부품질보증 상호수락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3. 국방조달을 전담하는 조직이 존재하는지, 존재하면 어떤 조직입니까?

- 국방부 산하의 ‘군비검증단’에서 국방조달을 전담합니다. ‘군비검증단’은 제기된 군 소요에 대해 검증하고,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며, 선행연구 및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관리 및 계약을 담당합니다.

4. 전자입찰체계가 있습니까?

- 전자입찰체계는 없고 입찰공고를 게재하는 수준입니다.

5. 입찰공고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공공조달법을 적용받는 입찰공고는 공공조달청의 공식 사이트 (<http://bzp.uzp.gov.pl/Out/Search.aspx>) 혹은 유럽연합의 법률신문 부록 사이트 (<http://ted.europa.eu/>)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주처의 자체 공식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 장관 지침을 적용받는 입찰공고는 발주처의 사무실 게시판이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 폴란드에서 폭발물, 무기, 탄약 및 군사 또는 경찰 목적의 기술 제조 및 거래와 관련된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업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내무부가 요구하는 의무를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영업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7. 입찰신청 시 특별히 유의하거나 준비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까?

- 국방조달은 공공조달법 적용을 받거나 국방부 장관 지침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입찰절차가 서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입찰이 공공조달법 적용을 받는지 국방부 장관 지침을 적용받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8. 입찰신청서류는 어떤 식으로 제출합니까?

- 공공조달법을 적용받은 입찰의 경우, 입찰서류는 직접, 우편 서비스 또는 전자 통신 방식을 통해서 발주처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제출 방식은 사전에 협의합니다.
- 국방부 장관 지침을 적용받은 입찰의 경우, 입찰서류는 서면, 팩스 등을 통해 이루어지나 정확한 제출 방식은 발주처가 업체에 예비 제안서 제출 초대장이나 협상 초대장에서 제시합니다.

9. 국방 분야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품질인증제도가 있습니까?

- 별도의 국방품질인증제도 및 담당 기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입찰공고에서 각 품목별로 요구되는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 입찰 관련하여 처벌규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민법상 물품을 인도한 후 2년 또는 부동산 같은 경우 5년 안에 물질적인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 업체는 이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발주처는 하자를 보완하거나 물품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교환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가격을 낮출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품질 보증은 다른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물품을 인도한 후 2년간 유효합니다. 품질 보증에 근거하여 발주처는 하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보완 작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의무 불이행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한국의 입찰제도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공공조달은 EU의 법령을 적용받으므로 EU 공공전자조달체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조달은 별도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영업권을 사전에 취득해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2. 외국기업이 입찰에 참가하는데 제약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제도적으로는 외국기업이 입찰에 참가하는데 특별한 제한조치는 없습니다.
- 하지만, 영업권 획득 요건이 자국민 또는 장기 체류자로 제한되어 있고, EU국가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Part II: Information concerning the economic operator

A: INFORMATION ABOUT THE ECONOMIC OPERATOR

Identification:	Answer:
Name:	[]
VAT-number, if applicable: If no VAT-number is applicable, please indicate another national identification number, if required and applicable	[]
Postal address:	[]
Contact person or persons ⁽⁶⁾ :	[]
Telephone:	[]
E-mail:	[]
Internet address (web address) (if applicable):	[]
General information:	Answer:
Is the economic operator a Micro, a Small or a Medium-Sized Enterprise ⁽⁷⁾ ?	[] Yes [] No
Only in case the procurement is reserved ⁽⁸⁾ : Is the economic operator a sheltered workshop, a 'social business' ⁽⁹⁾ or will it provide for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n the context of sheltered employment programmes? If yes, what is the corresponding percentage of disabled or disadvantaged workers? If required, please specify which category or categories of disabled or disadvantaged workers the employees concerned belong to?	[] Yes [] No [] []
If applicable, is the economic operator registered on an official list of approved economic operators or does it have an equivalent certificate (e.g. under a national (pre)qualification system)?	[] Yes [] No [] Not applicable
If yes: Please answer the remaining parts of this Section, Sections B and, where relevant, C of this Part, complete Part V, where applicable, and, in any case, fill in and sign Part VI.	
(a) Please provide the name of the list or certificate and the relevant registration or certification number, if applicable:	(a) []
(b) If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r certification is available electronically, please state:	(b) (web address, issuing authority or body, precise reference of the documentation): [] [] [] []

(6) Please repeat the information concerning contact persons as many times as needed.

(7) Cf.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6 May 2003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OJ L 124, 20.5.2003, p. 36). This information is required for statistical purposes only.

Micro enterprises: enterprise which employs fewer than 10 persons and whose annual turnover and/or annual balance sheet total does not exceed EUR 2 million.

Small enterprises: an enterprise which employs fewer than 50 persons and whose annual turnover and/or annual balance sheet total does not exceed EUR 10 million.

Medium enterprises, enterprises which are neither micro nor small and which employ fewer than 250 persons and which have an annual turnover not exceeding EUR 60 million, and/or an annual balance sheet total not exceeding EUR 43 million.

(8) See contract notice point 111.1.5.

(9) i.e. its main aim is the social and professional integration of disabled or disadvantaged persons.

(c) Please state the references on which the registration or certification is based, and, where applicable, the classification obtained in the official list ⁽¹⁰⁾ :	(c) []
(d) Does the registration or certification cover all of the required selection criteria? If no: In addition, please complete the missing information in Part IV, Sections A, B, C or D as the case may be. ONLY if this is required in the relevant notice or procurement documents:	(d) [] Yes [] No
(e) Will the economic operator be able to provide a certificate with regards to the payment of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taxes or provide information enabling the contracting authority or contracting entity to obtain it directly by accessing a national database in any Member State that is available free of charge? If the relevant documentation is available electronically, please indicate:	(e) [] Yes [] No (web address, issuing authority or body, precise reference of the documentation): [] [] [] []
Form of participation:	Answer:
Is the economic operator participating in the procurement procedure together with others ⁽¹¹⁾ ?	[] Yes [] No
If yes, please ensure that the others concerned provide a separate ESPD form.	
If yes:	
(a) Please indicate the role of the economic operator in the group (leader, responsible for specific tasks ...):	(a): []
(b) Please identify the other economic operators participating in the procurement procedure together:	(b): []
(c) Where applicable, name of the participating group:	(c): []
Lots	Answer:
Where applicable, indication of the lot(s) for which the economic operator wishes to tender:	[]

B: INFORMATION ABOUT REPRESENTATIVES OF THE ECONOMIC OPERATOR

Where applicable, please indicate the name(s) and address(es) of the person(s) empowered to represent the economic operator for the purposes of this procurement procedure:	
Representation, if any:	Answer:
Full name:	[]
accompanied by the date and place of birth, if required:	[]
Position/Acting in the capacity of:	[]
Postal address:	[]
Telephone:	[]
E-mail:	[]
If needed, please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representation (its terms, extent, purpose ...):	[]

(10) The references and the classification, if any, are set out on the certification.

(11) Notably as part of a group, consortium, joint venture or similar.

C: INFORMATION ABOUT RELIANCE ON THE CAPACITIES OF OTHER ENTITIES

Reliance:	Answer:
Does the economic operator rely on the capacities of other entities in order to meet the selection criteria set out under Part IV and the criteria and rules (if any) set out under Part V below?	☐ Yes ☐ No

If yes, please provide a separate ESPD form setting out the information required under Sections A and B of this Part and Part III for each of the entities concerned, duly filled in and signed by the entities concerned.

Please note that this should also include any technicians or technical bodies, not belonging directly to the economic operator's undertaking, especially those responsible for quality control and, in the case of public works contracts, the technicians or technical bodies upon whom the economic operator can call in order to carry out the work.

Insofar as it is relevant for the specific capacity or capacities on which the economic operator relies, please include the information under Parts IV and V for each of the entities concerned ⁽⁴⁾.

D: INFORMATION CONCERNING SUBCONTRACTORS ON WHOSE CAPACITY THE ECONOMIC OPERATOR DOES NOT RELY

(Section to be filled-in only if this information is explicitly required by the contracting authority or contracting entity.)

Subcontracting:	Answer:
Does the economic operator intend to subcontract any share of the contract to third parties?	☐ Yes ☐ No
	If yes and in so far as known, please list the proposed subcontractors:
	[]

If the contracting authority or contracting entity explicitly requests this information in addition to the information under this section, please provide the information required under Sections A and B of this Part and Part III for each of the (categories of) subcontractors concerned.

2019년 방산수출 가이드북

발행일	2019년 00월 00일
발행처	국방기술품질원 (우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 대표번호 055) 751-5370, http://www.dtaq.re.kr
발행인	이 창 회